

천지를 만드시며 또 폐하기도 하시는 전능의 해님 아버지, 광암없이 최거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화생을 본받는 믿음을 다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을지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절, 5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3월 29일 (토) 제 147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허리우드 재난영화 덮개에 가린 성경의 노아!

CT, 영화 “노아” 논쟁 보도...한국에선 이미 부정적 평가

성경에 담긴 이야기를 허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인 파라마운트가 전문학적 제작비용을 들여 블록버스트급 초호화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해 만든 영화 노아는, 그러나 성경의 신실한 노아가 아니다.

영화 '노아'의 각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을 따랐다. 하나님(창조주)은 타락한 인간들을 파괴(쓸어버리려고)하고자 대홍수를 일으키려 한다. 하나님(창조주)은 대홍수에 대비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시킨다. 세상의 동물 일곱 쌍씩과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태운다. 그 후 대홍수가 일어난다는 게 큰 이야기의 흐름이다.

그러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성경과 판이하다. 먼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한 존재다. 성경에서는 야훼 즉 하나님이고, 영화에서는 창조주다. 야훼나 창조주나 뭐가 다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어

는 시각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기독교의 창조주는 야훼고, 이슬람교의 창조주는 알라신이며, 힌두교의 창조주는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먼저 개봉돼 흥행에서는 선전을 거두고 있지만, 평점에서는 이미 크리스천들에 의해 “테러 수준”의 최악의 점수를 받고 있는 영화 노아는 인류최초의 재난 영화라는 환타지 모험 영화 수준의 그래픽과 각본에 성경적 모티브가 채색된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전미종교방송협의회(NRB) 회장 제리 존슨 박사의 영화 노아비평(MOVIES, Noah: Five Negative Features about this Film)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영화 노아를 볼 것을 제시해준다.



영화 '노아'의 한장면 성경의 노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우선 영화 '노아'에 대한 간단한 줄거리와 제작사 측의 소개를 짚어 보자!

성경에는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세 며느리를 배에 들여보냈다'라고 쓰여 있는 반면, 영화는 노아 부부와 셈 부부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이 방주에 오른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우두머리인 두발가인도 물레 방주 안에 숨는다.

그리고 영화 주제의 핵심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지속 생존여부다. 이는 목적인 철학적 물음을 던지며, 영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 이 세상을 타락시킨 인류란 종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느냐, 아니면 그래도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 제기인 것이다.

성경에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아 인류의 조상이 된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인간의 폭력'으로 이 세상을 타락시켰으니 우린 파괴돼야 된다고. 노아는 자신의 임무인 지구상의 생명체를 살리는 일이 끝나면 모든 인간도 사라져야 한다고 여긴다. 여기에서 인간이면서 가족의 목숨과 자신의 신념이

부딪친다. 바로 허리우드식 영웅의식-목적과 대의명분이 분명한-성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로운 영웅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손자를 죽이려는 노아에게 머느리 일라가 묻는다. "이젠 전부 끝인가요?" 그러자 노아가 대답한다. "시작이다." 노아의 신

념에는 새 세계를 위해서는 인간이 존재해서는 안 되었다. 비록 자신의 손자지만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유였다. 모든 것이 끝나야 새 세계가 펼쳐진다고 노아는 굳건히 믿었다.

가족을 죽여 인간에 의한 제 2의 지구 파괴를 막으려는 노아의 광기

와 이를 막으려는 가족들의 사투는 이를 지켜보는 관객에게 큰 울림(?)을 준다. 특히 고뇌와 광기 속에 변해가는 노아역의 리셀 크로우 얼굴이 클로즈업돼 스크린 가득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성경의 노아와는 다른 또 다른 영웅(?)의 탄생의 시작일 뿐이다.

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가 왜 성경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창조주를 언급했는지, 그리고 가족의 수를 줄였는지, 인간 생존의 지속여부에 초점을 두었는지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런 아로노프스키 감독은 창세기 6-8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2시간 20분짜리 영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허구의 인물과 설정을 도입했다. 감독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에 대해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라고 밝혔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노아가 홍수에 대비해 방주를 만들고 인류의 존속을 위해 가족과 함께 들어가는 것으로 나온다.

(3면으로 계속)

성경이 우선돼야 한다!

리더십저널, 윌로우크릭 그렉 호킨스 목사의 성경이 교회 근간되기 위한 3가지 전략 소개

“교회 지도자는 무언가에 베풀었을 때 피부에서 성경이 흘러나와야 한다”(토드 와그너, 댈러스 워터마크 교회). 윌로우크릭커뮤니티처치의 부목사 그렉 호킨스는 1996년부터 담임목사인 빌 하이벨스를 보좌하여 윌로우크릭의 다섯 캠퍼스와 윌로우크릭 어소시에이션(WCA, Willow Creek Association)을 전략적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그는 WCA 안에서 여러 조사 도구와 발견한 것들을 활용해 교회가 회중의 영적 성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시도(REVEAL)의 핵심 리더로 섬기고 있다. 그렉은 교회공동체 리더인 목회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한다. 성경만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이다.

설교 주재료는 성경...교인들의 성경읽기에 최선 교회 내 모든 일에서 '하나님 찾기' 를 최우선에

모범적 교회들은 성경을 단순한 교재가 아닌 모든 것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삼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회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성경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그 원칙을 충실히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말이지만, 실제로는 기존교회들에서 찾아보기 힘든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있거나 성경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을 뿐 아니라, 당회나 위원회 등 교회의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서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교회의 근간이 성경이 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결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위해 교인들을 도우려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몰두하도록 돕는 사역이어야 한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구현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모범적인 교회의 목회자들은 성경이 교회의 근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주요 전략을 사용한다.

(3면으로 계속)



2면

내 영혼의 친구, 미안하고 고마워요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선교의 창전호진 박사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16면

교회연합선교대회 성료 "뉴욕 지역교회들, 선교지 찾아가다"

가주장로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 기념 감사예배

가주장로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주장로교회를 24년 간 섬기시던 민준기 목사님을 원로목사로 추대하며 이성희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목사로 위임하면서 아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시 2014년 4월 6일(주일) 오후 4시
장소 가주장로교회
주소 6575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문의 C.(714)527-5040, (714)588-1109



담임목사 이성희



원로목사 민준기



시론

사순절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묵상해 봅시다.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저는 개인적으로 "실증주의 신앙"에 힘이 붙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튼튼하게 보이는 나무일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병든 나무이고, 겉으로는 비실비실 보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면 건강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마 12:33). 믿음도 보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에서, 순간마다의 결단 속에서 "예수 생명의 빛"을 비취 우리

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마5:16)을 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롬12:1)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영적 예배"인가? 저의 이번 사순절 묵상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물음 속에 8년전 하늘나라로 이사하신 ET 할아버지가 떠올라 사순절에 함께 나누시죠.

'E.T. 할아버지'로 알려진 채규철(1937-2006)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저기가 어디야, 아름답구먼. 나 이제 급히 감세"였습니다. 환경도 함흥에서 농촌목회를 하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6:25 때 혼자서 서울로 내려와 길거리나 전막교회 한쪽 귀퉁이에서 새우잠을 자며 서울시립농업대(서울시립대학교의 전신)에서 공부하고는 졸업 후 덴마크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찬란한 희망의 날개를 막 펼쳤습니다. 그는 장거리 박사와 함께 일종의 의료보험인 "정신자의료조합"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68년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자동차 사고로 온몸은 불에 타 숯검정처럼 변했고 얼굴은 도깨비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끈질겼습니다. 30차례가 넘는 성형수술을 받은 후 머리칼로 눈썹을 심고, 어깨 살갓을 떼어 눈꺼풀을 만들고, 입술은 가슴살로 되살렸고, 오른쪽 눈엔 의안을 넣었습니다. 손은 갈고리처럼 휘어져 손가락까지 오그라들었습니다. 오른쪽 눈은 깜빡이지 않는 의안이며 왼쪽 눈은 살에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진 고통에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던 1968년 병석에서 일어나자 다시 청십자 운동에 가담하여 1982년까지 서울 청십자 의료협동조합을 맡아 열정적으로 일했으며, 1970년에는 간질환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모임인 "장미회"를 창립했습니다. 이어 1975년에는 "사랑의 장기기증본부"를 창립해 돌아가실 때까지 일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그를 "한국의 모세 채규철"로 불렀고, 절친한 아이들은 'ET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붙여주며 따랐습니다. ET는 외계인 같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미 타버린 사람"의 준말이기도 했습니다. "농촌계몽운동"에서 비롯된 그의 교육사업은 1986년 경기도 가평에 설립한 '두밀리 자연학교'로 연결됐습니다. '어린이가 바로 세상'이라는 철학을 이곳에서 실천했습니다. 평생을 계몽과 교육, 봉사 사업에 헌신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데 'E'가 두 개 필요해. 'Forget(잊어버려라)', 'Forgive(용서해라)'. 사고난 뒤 그 고통 잊지 않았으면 나 지금처럼 못 살았어. 잊어야 그 자리에 또 새 걸 채우지. 또 이미 지나간 일 누구 잘못이 어디 있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 받는 거야"(조선일보 관련기사 참조).

비록 외모가 흉측할 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나라 회복을 위해 의미있는 그 무엇인가를 열정을 갖고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는 여전히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이 항상 남아있다고 믿었고, 그 믿음의 길을 열정으로 걸어갔기에 오늘까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평생을 자기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사셨던 어른이었습니다. 이 어른이 남기신 2F, "Forget, Forgive"를 이번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있을 거 있고, 지울 거 지우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그리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오늘의 "ET", "작은 예수", "하나님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인 그 한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기를 소망해봅시다.

“좋은 씨앗은 척박한 토지에서도 열매 맺는다!”

CT, 팀 켈러 목사 인터뷰 통해 후기기독교시대에서의 복음 증거 제시 노하우 보도

사려 깊은 많은 크리스천들은 문화적 적절성을 이유로 교리라는 장자권을 팔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메시지를 후기 기독교 세계에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팀 켈러(Tim Keller) 목사는 예상 밖의 장소에서 복음이 꽃필 수 있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뉴욕 리더머장로교회 목사인 그는 신간 "센터 처치"(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에서 수십 년에 걸친 목회 경험과 문화적 통찰을 활

용해 현대 도심 사회에 침투하기 위한 신학적 비전을 제시한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인터뷰에서, 켈러 목사를 통해 후기 기독교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세속적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보도해준다(Don't Give Up on Post-Christian Places: Tim Keller shows how the seeds of gospel transformation can take root in rocky secular soil).

"센터 처치"를 쓴 동기는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1980년대 중반 이후 가르친 내용을 책으로 묶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교리적 고백과 교회 프로그램 사이에 '공간 공백'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신학과 문화의 관계를 고민한다. 그 둘이 공통으로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다. "센터 처치"에서 나는 그런 통합적 반성을 "신학적 비전"이라고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순간에 복음이 생활과 사역, 선교에 대해 갖는 심오한 함의를 충실하게 재 정의하는 것이다.



나라고 선언한다. 우상에 바친 음식 문제를 지적하는 10장에서는, 우리는 자유인이지만 서로 희생하며 사랑해야하기에 완벽한 자유인은 아니라면서 문화적 규범을 약화시킨다. 12장과 14장에서는 예배문제를 다룬다. 이 모든 내용을 다루면서 사도가 "여기 이런 법칙이 있으니 따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그는 반복해서 복음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 백성 앞에 놓인 특정 문제들 사이에서 결론을 도출해낸다. "센터 처치"에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복음의 부흥을 가져오시는 방법이요 수단임을 확인하기위해 교회사에 등장하는 그런 예들을 살핀다.

개인적 지역교회 차원에서 부흥의 증거들 목격 가르침, 죄 고백, 기도, 기쁨, 예배, 전도 활발

이 책은 도심에서 목회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인가?

리더머교회에서 실시한 '시티 투 시티'(City to City)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도심 사역자들에게 제공한 교훈들이 비 도심지역 사람들에게 계도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놀랐다. 내 생각에는, 후기 현대 문화가 비 도심공동체에도 비슷한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인 듯하다. "센터 처치"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그런 것들이다. 예를 들어, 아이오와주의 작은 대학 도시에 사는 사람도 우리가 뉴욕에서 마주치는 것과 비슷한 복음 증거 기회를 많이 만날 것이다.

만약 뉴욕의 유력일간지에서 리더라면 뉴욕시를 어떻게 섬길지 비전을 밝히는 특집 기사를 제안한다면 어떤 내용을 실겠는가?

일반 언론에서는 복음주의의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에서 (예언자의 목소리는 고사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에조차 반대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뉴욕시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그런 신문이라면 나는 먼저 세 가지 언급하고 싶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가 재산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신다.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이해할 때, 로버트 벨라가 자신의 책 "마음의 습속(Habits of the Heart)"에서 '공동선에 대한 기여'라고 묘사한 내용을 반영해야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나는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로 이 도시를 채우고 싶은 소망을 표현할 것이다. 나는 자신의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싶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고, 이 도시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이다. 19세기 초반 영국의 윌버포스처럼 우리도 치유와 구원을 추구할 것이다.

둘째로는 예술가들과 사상가들을 언급하려한다. 기독교인들은 반 이상향의 염세주의(사람들은 염세주의를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지적할 때가 많다)에 반대하고 미래에 대해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려한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약에 대해 순진한 태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소망이 있으며, 이 소망이 우리 일상을 장악하고 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중함과 진정한 다원주의가 성장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다. 즉 분노에 맞서고, 다양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 사이에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창

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교회가 '복음의 부흥'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미국 어디에서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개인 차원뿐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 같은 대규모 차원에서도 복음의 부흥이 간절히 필요하다. 후자는 가르침과 죄의 고백, 기도, 기쁨, 예배, 전도 등이 특히 활발한 때, 즉 우리가 '부흥'이라고 할 때 흔히 말하는 바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예를 들어, 바울이 복음을 교회들에 적용하는 고린도전서 1장을 생각해 보라. 바울은 먼저 분열되고 갈라진 관계문제를 언급한다. 그런 다음 부도덕과 이혼문제를 다루면서, 기독교인들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

고 개인과 지역 교회 차원에서 나는 부흥의 증거들을 목격한다. 감사하게도 이 세상에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작은 집단들이 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인구보다 빠르게 늘어나는 거대한 움직임을, 적어도 북미나 유럽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년 전에 1857-1859년 뉴욕의 부흥을 다룬 설교집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기간에 당시 뉴욕시 인구 80만 명의 10%에 해당하는 8만 명이 교회를 찾았다. 이런 것을 복음이 부흥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이런 현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끊임없이 과거의 이런 기적에서 미래의 소망을 보아야한다. 좋은 씨앗이 마르고 척박한 땅을 뚫고 들어가 곧 내릴 단비를 기다리듯이.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성경과 전혀 다른 '새롭고 의로운' 영웅 탄생

CT, 영화 "노아" 논쟁 보도...한국에선 이미 부정적 평가

(1면에서 계속)

그러나 크로우가 연기하는 영화 속 노아는 인간에 대한 완벽한 심판을 위해 자신과 자신까지 멸하려는 존재다.

28일 미국 개봉을 앞둔 '노아'는 미국에서 기독교인과 유대인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시사화를 열었을 때도 성경 왜곡이라는 지적을 받았지만 감독의 의지대로 재편집 없이 개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NBR 제리 존슨 회장은 결국 영화 '노아'에 드러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제기한다.

영화 노아의 노아는 타락과 죄악을 가져온 인간은 반드시 멸절돼야 한다고 신뢰한다. 동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가족을 사용했기에, 노아는 칼을 들어 자신의 손주를 죽이려한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들을 죽이려했던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다른, 철저하게 어두운 전혀 "의로운" 신앙의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들까지도 영화 노아속의 노아는 전혀 그들의 신앙 정서에 맞지 않는다.

또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홍수를 통

간들에게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지막 순간엔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The Nephilim concept).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 천사들을 마치 인간들을 돕고 이롭게 하려다가 잔인한 신(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존재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처럼 타락천사들이 잔인하고 무자비한 신(하나님)으로부터 인간들을 도와주려하다가 저주

결론으로, 영화 노아는 이외에도 성경적인 자료가 아닌 증명되지 않은 부차적인 요소들을 영화에 이식했다. 심대로 묘사되는 노아의 아들들은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고, 나머지 아들들 아내만이 2명의 여자 아이들을 데리고 방주에 타는 것이 그 실례다.

성경에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인생들을 심판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 주제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 노아에서는 본래 하나



"성경 배경으로 한 영화 중 가장 성경적이지 않은 영화" 애러노프스키 감독 교회가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메시지 온전하게 알려줘야

해 심판하려고 했던 원인이 철저하게 "환경론"에 밀린다. 인간에 의한 최초의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파괴됐다고 영화 노아는 묘사한다. 따라서 인간의 사악함, 악한 생각, 부절, 폭력이 바로 노아 세대의 특징이었는데도 이는 환경오염으로만 축소된다.

여기에 "유신론적 진화론"이 교묘하게 등장한다. 방주의 갑갑한 실내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창조이야기를 들려준다. "빛이 있으라"고 창조주가 명령하시고 나서 모든 피조물들이 껍질을 벗고 허물을 던지며 좀 더 복잡하게 진화해가는 것으로, 창조가 재연되기 때문이다. 첨단 컴퓨터 그래픽 효과로 극히 자연스럽게 창조 과정이 진화형태로 연출된다.

영화 노아의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천사들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

를 받은 존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을 가진 루시퍼의 상징인 프로메테우스-그리스 신화에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가 신들에게 영원히 저주를 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영화 노아에서도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늘에서 지상에 내려온 '타락 천사들이 잔인한 신(하나님, 여호와)에게 저주를 받아 홍물스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타락 천사들을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류를 돕기 위해 찾아온 선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돕기 위해 찾아왔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6개의 팔이 달린 괴물(네페림?)로 변한 타락 천사들이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님이 노아의 가족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노아의 위대한 선택으로 인해 인류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크리스천들이, 그리고 교회공동체가 창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영화 '노아'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방법으로 영화 노아를 보이콧하기보다는 우리가 믿는 참 소망에 대해 묻는 자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가르쳐야 해야 한다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벧전3:15)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있는지와 암송구절을 나누고, 모든 문제에서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교회의 일꾼들이라고 해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에는 성경목상이 포함된다.

결국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성도들이 예배에는 참석하지만 신도석의 성경 위에는 먼지만 쌓이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져야만 한다. 성경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말은 교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실천이 이뤄질 때는 기존 체제에 대한 충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영원한 공동체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하면 다양한 종족과 언어의 출발은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전의 상태는 한 언어, 한 구음, 한 종족이었으나 그것을 구실로 인간들은 헛된 일을 경영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위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다. 그들이 경영했던 헛된 일이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인간의 능력과 이름을 높이고 명성을 떨치자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종족간의 갈등이나 방언의 혼잡은 바벨탑 사건으로 자초한 심판의 결과인 것이다. 그 후로 인간들은 방언이나 종족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그 노력은 무위로 끝나곤 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은 방언의 통일 가능성을 예시해 주었다. 물론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복음의 세계를 위한 성령의 비상조치였다. 그러나 오순절 사건이 방언으로 표출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오순절의 방언 사건은 그 당시로서는 각각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방언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었다는 기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그 사건은 그 차원을 넘어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시민들이 사용하게 될 통일된 방언의 예표적 의미를 제시해준다. 하나의 민족공동체가 형성되려면 이념이나 관습에 앞서 동일 언어의 사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의사소통이 전혀 불가능한 개인이나 집단끼리는 공동체 형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는 자보(自保), 자위(自衛), 자익(自益)을 위해 연합공동체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안전보장을 전제한 국제연합이라든지, 구라파의 정치 경제 통합을 전제한 이유(EU)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의 아세안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한부적 연합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합집산이 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나 교회는 궁극적으로 하나일 뿐이다. 인간들의 손과 머리로 교파를 만들고 교리를 만들어 저마다 색다른 간판을 내걸긴 했지만 그 간판들은 지상에서만 유효한 것이다. 그렇다면 구태어 한시적 지상교회들이 교파지상주의나 교권지상주의의 포로가 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생단체들 가운데 교회만큼 그 뿌리가 깊고 그 나무가 큰 공동체가 없다. 그리고 교회만큼 힘을 가진 단체도 없다. 교회는 두 가지 힘을 향유한다. 하나는 조직 속에서 생성되는 가건적 힘이며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힘이다. 그것은 곧 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인 것이다.

교회는 그 힘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 나가며 발전해 나간다. 교회는 지엄적이거나 자질구레한 사건들이라면 견해를 달리하고 입장을 달리한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들, 예를 들면 진리수호라든지 교회의 존폐문제라든지 선교의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등의 사태가 돌발할 때는 뜻과 행동을 집합한다. 그것은 교회의 궁극적 목적과 지향점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실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다. 소리 없이 잠잠한 것 같으면서도 건드리면 그 소리가 큰 공동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움직이면 그 반경이 큰 거인, 침묵하다가도 포효하는 생명체,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다. 그 뿐인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서 섰다하면 교회라는 빈축을 받으면서도 그 깊이를 따져보면 단 하나로 귀결되는 공동체인 것이다. 그러기에 역사도, 정권도, 그 어느 집단도 교회를 함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 무신론 세계 속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력을 지니온 강인한 공동체인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는 영원한 교회로 들림 받을 때까지 계속하여 성장할 것이며 성숙을 향해 진일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우선돼야 한다!

(1면에서 계속)

1. 설교를 할 때 성경을 그 주재료로 삼는다.

어떤 방법론이 아니다. 모범적인 교회의 설교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스타일의 설교를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스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들은 모두 사람들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내면화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설교의 방식이나 커리큘럼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의 성경에 대한 열정이다.

2. 모범적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가까이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는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반드시 몇 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나누겠다는 서약을 하게 하기도 하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하기도 하는 등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모든 교인들이 주중에 성경을 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3. 교회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게 한다.

직원회의 때 성경에서 각자가 무엇을 배우고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2014년 봄학기 및 여름 집중강의 안내(티 Monte 캠퍼스)

학교 소개

ITS는 현재 캘리포니아 LA근교 엘몬티(El Monte)에 자리하고 있는 신학교로서 32년 전에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선교지 지도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 김익환 박사께서 LA 지역에 설립한 한인인 세운 신학교로서는 최초로 미국신학교협의회인 ATS의 정회원으로 인준된 신학교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 공히 목회학 석사과정(M.Div), 신학 석사과정(Th.M), MA 석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프로그램은 이민 사회에서의 이민자들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며 또한 해외한인선교사들의 역량을 구비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내 주요 교단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오시는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행합니다. 또한 학비는 저렴하며,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 면제도 제공합니다.

2014년 봄학기(3/31-6/13) 및 여름 집중강의

월: 리더십(Dr. Christina Kang), Senior Preaching(Director), 근대교회사(Dr. Katherine Ahn)
화: 기독교윤리(Dr. Edmund Rhee), 전지서(Dr. 김철원)

여름 집중강의

6월 16-20일 (월-금) 설교와목회 (Dr. 이연길)
6월30일-7월4일(월-금) 16-17세기 개혁주의신학 (Dr. 한병수)
* 입학 사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청강 역시 가능합니다 (청강비 140불).
* 자세한 정보는 www.itsla.edu를 참고하시고, 전화문의는 626-448-0023.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N. Tyler Ave., El Monte, CA 91731
총 장: Dr. James Lee
한국학부 Director: 김재영 목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www.itsla.edu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그럭저럭 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존재로 자신을 항상 무시하며 삼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되는데로 사십니까? 자존감이 없거나 무너진 사람은 불행하며, 대부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그것에 따라 건강한 자존감과 병든 자존감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근거가 나 자신, 곧 나의 외모, 학벌, 성공, 능력, 소유, 업적 등에 있다면, 나의 자존감은 병든 것입니다. 그런 자존감은 나를 교만과 작각 속에 살게 하며 언젠가 헛것으로 초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렘9:23).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자존감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건강한 자존감은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첫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에 있습니다(창1:26-27).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사라질 나의 외모, 능력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건강한 자존감의 둘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범죄하며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 천한 위치로 떨어졌습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전락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존귀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자신에 근거하여 자존감을 끌어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존심을 위하여 하나님 없는 학문과 과학의 바벨탑을 쌓아왔고 혁명과 권력에 집착하고 돈을 추구하며 외모를 가꾸고 성형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학벌이 없어도, 외모가 못생겼어도, 삶이 실패로 얼룩져 있어도, 가난해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집시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이영상 목사
(뉴욕중앙신정교회)



시편 42편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성도들의 고통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있느냐고 비웃고 이때마다 성도들은 눈물을 주야로 음식을 삼았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았으면 눈물을 가지고 주야로 음식을 삼았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의 삶속에도 환난과 고통은 항상 언제든 어디서든 찾아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환난을 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어떤 대응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 대응이 있습니다. 마냥 한탄하고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대응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 그리고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당신만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매서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회개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기에 저들이 지은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쏠리게 되고 그리고 죄가 결과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아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관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도 과부만큼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르밧 과부의 평범한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불평에만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고통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르밧 과부는 아들과 함께 벌써 죽었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 오던 그날에 죽어야 할 사람들이 오늘까지 엘리야 선지자로 인해 먹고 마시고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것은 별로 생각

아무리 선지자일지라도 과거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는 사실로 인해 생명을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려주세요 오." 담대한 믿음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가능한 기도였습니다. 빈 골방에 들어가서 아이의 주검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렸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난 아이를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의 심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 못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꺼지지 않는 불 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역사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초청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개인 구원역사 속의 주인공들입니다. 다 서로 다른 구원역사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느덧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로 바뀌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이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과부의 신앙고백을 통해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교제를 하자고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교제의 방법이 고통스럽고 환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통들도 오히려 축복의 전주곡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신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아무도 영생이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에 대해 감사드리고 사순절기간동안 고난까지도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
(왕상17:17-24)

17절은 말씀합니다. 과부에게 아들은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과부가 아니라고 해도 아들은 엄마에게 생명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중근동지방에서 과부는 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여자들은 나이여러서는 아버지 손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손에 결정되어지고 나이 들어서는 아들의 손에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문맥상 남편과 아버지는 없던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아들에게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같은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슬픔과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게 낫다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은 사르밧 과부를 큰 시험에 들게 합니

을 것입니다' 라고 아주 매서운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회개하는 고백은 아닙니다.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어차피 죄인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살기에 저들이 지은 죄 값을 치르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쏠리게 되고 그리고 죄가 결과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아들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관이고 죄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도 시험이 들었을 지도 모릅니다. 엘리야 나름대로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집에 저를 오게 하시고 더욱이 지금까지 떠난죽 그릇과 기름병의 축복을 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가 하필이면 지금 과부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 선지자

안합니다. 항상 있어버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이 사건이 단순하게 보여 지지 않았습다. 그 먼 곳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제쳐 놓고 이 먼 이방 땅 두로와 시돈 땅 사르밧에 보내시고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과부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잘살게 하신다가 외아들을 죽게 하신 사실이 그냥 지나쳐 갈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를 통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고 다락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그 어머니에게 아들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사르밧 과부에게 베풀어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외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방 땅 두로와 시돈 땅 사르밧에 보내시고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과부에게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잘살게 하신다가 외아들을 죽게 하신 사실이 그냥 지나쳐 갈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해야 하고 이 기도를 통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은 것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잠자던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다시 불러주셔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에게 죽은 것은 단순히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주께서 오실 때에 잠자던 우리의 육체에 영혼을 다시 불러주셔서 모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서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있는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V. 기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로만 발송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 있음.

2014년 3월 28일

뉴욕 새교회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
기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우주왕복선은 대기권에 진입할 때 공기와 마찰하면서 섭씨 1000도가 넘는 불길에 휩싸이게 된다. 어떻게 우주왕복선이 그 뜨거운 열을 견디고 무사히 지구로 도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번 쓴 우주왕복선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은 바로 우주왕복선의 외부표면을 덮고 있는 세라믹 타일에 있다. 1981년 처음 발사된 컬럼비아호의 바깥에는 무려 3만 장이 넘는 파인세라믹 타일이 덮여있었다.

세라믹스(ceramics) 혹은 세라믹이라고 불리는 매체는 열과 냉각 활동으로 마려워진 무기화합의 비금속고체이다. 전통적 의미의 세라믹은 점토 등 천연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들며, 주로 도자기 등 용기로 사용되어왔다. 최근에 발견된 파인 세라믹스(fine ceramics)는 고순도의 인공원료를 사용해서 만든다. 세라믹은 금속과는 반대로 전기를 잘 전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기재료와는 달리 고온에도 잘 견딘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금속 무기재료는 대리석, 화강암, 대

성취되어왔다.

1)먼저 머리인 바벨론은 가장 영광스러운 금의 제국이다. 오늘의 이라크다. 다니엘이 느브갓네살왕의 꿈을 해석해준다. 그 해석을 들은 느브갓네살은 200톤이상되는 금으로 신상을 만든다. 높이가 90피트 폭이 9피트가 되는 경이적인 규모이다. 바벨탑과 같이 높은 탑을 쌓고 정상에 신전을 짓고 그 꼭대기에 금신상을 세웠다. 바벨론의 영광을 보여준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바벨론의 모습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사치와 타락에 취한 음녀의 모습이다. 다니엘이 벨사살왕에게 한 예언처럼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진다. 요한계시록의 음녀 바벨론도 메시아의 재림으로 한 순간에 무너진다.

2)팔과 가슴의 은의 제국은 메대 바사이다. 원래 메대와 바사는 다른 나라이지만 하나로 끝까지 존재한다. 그들이 사용한 매체는 은이었다. 지금까지도 은으로 만든 수많은 세공

5)발과 발가락의 제국은 철과 흙이 섞이는 제국이다. 마지막 제국이다. 이 제국은 섞이지만 섞이지 않는 세대이다. 특징상 철과 흙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있는 제국이다. 한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으로 보기도 했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도 분명한 것은 지금은 발가락 시대이다. 말세지말이다. 발가락은 열이지만 하나이고, 하나이지만 열이 된다. 이것은 현대의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보여준다. 인종이 섞이지만 불화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여기서 철과 흙이 섞여 있는 모습에서 '흙'에 주목해야 한다. 성경은 이 흙이 보통 흙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흙'이라고 했다. 토기장이의 흙은 열을 가하는 방법을 쓴다. 토기장이의 흙으로 나오는 것은 세라믹이다. 자기 등의 도기류이다. 무슨 말씀인가? 성경은 세라믹의 시대가 오면 그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흙과 철이 섞이는 시대의 끝에는 세상 제국이 망한다. 세상나라는 뜨인 돌 즉 사람의 손으로 나지 아니한 돌로 인하여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 하지만 뜨인 돌이 세상에 가득하여지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천국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 왕국을 완성시킨다. 다시 말하면 세라믹 시대는 발가락 시대이고 예수님의 재림 바로 전 마지막 시대이다.

지금까지는 흙과 철이 섞여지지 않는 시대였다. 과거 세라믹은 토기장이의 흙은 가열하여 얻었다. 지금의 세라믹은 철과 흙이 합하

토기장의 흙, 세라믹 시대의 도래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부분의 흙, 돌 등이 있다. 반면 도자기, 시멘트, 유리뿐만 아니라 각종의 뉴세라믹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바야흐로 세라믹 시대에 접어들었다. 세라믹 시대의 열림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과 연결되는 우리의 시대에 주신 또 하나의 살아 있고 가장 새로운 종말의 징조이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는 예언이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브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에 대한 해석이 나온다.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완벽한 짝을 이룬다.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장으로 종말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도와 같다.

다니엘서에 나타난 느브갓네살이 본 신상은 세상을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 나라를 보여준다. 머리는 금이고, 팔과 가슴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고, 그 다리는 철이고, 그 발과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여져 있는 모습이다. 이것은 다니엘 이후의 세계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예언이고 정확하게 그대로 성취되어왔다.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들의 특징들을 그렇게 정확한 상징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놀랍기만 하다.

성경이 보여주는 금신상의 비밀은 매체와 관계가 된다. 제국의 바퀴를 매체의 변화로 보여준다. 그리고 제국의 특징을 특정한 매체로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 예언은 오늘까지 그대로

품과 유물들이 남아있다. 마치 두 팔이 있는 것처럼 이 제국은 나누어져있지만 하나가 된다. 메대는 바사에 의하여 하나가 된다. 오늘 의 이란이다. 다니엘 8장에 보면 두 번째 빨린 바사가 고레스 2세 때에 첫 번째 빨린 메대를 능가하고 합병한다.

3)배와 넓적다리의 등의 제국은 헬라다. 현대의 그리스다. 헬라는 청동기로 세계를 지배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다니엘서 8장의 예언처럼 메대 바사를 굴복시킨다. 그의 꿈은 전 세계를 헬라화시키는 것이었다. 세계는 헬라화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세계의 문화를 준비한다. 성경의 예언처럼 알렉산더의 죽음 후에 제국은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 통치한다. 그리고 북방왕과 남방왕의 싸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예외적인 인물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를 등장시킨다.

4)두 다리의 철의 제국은 로마이다. 로마는 강력하고 나라들을 부수뜨리고 정복한다. 철의 나라들은 강력하다. 과거의 불레셋도 철기 문명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오랜 세월 존재한다. 철의 제국인 로마는 강력한 파괴력으로 세계적인 평화를 가지고 옴으로 복음이 세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시대로 나타난다. 다리는 두 개인 것처럼 로마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어진다. 강력한 정복력으로 오랜 세월 세계를 통치한다.

는 물질이다. 지금까지는 자연 그대로의 흙을 사용해서 도기를 구웠다. 구세라믹이었다. 하지만 뉴세라믹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연 채취물이 아니라 순수물질을 구별하여 가열하면 전혀 새로운 종류의 물질이 나온다. '토기장이의 흙' 은 흙의 종류가 아니라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열을 가하면 새 매체가 나온다! 얼마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인가!

세라믹이 등장한 후에 깨달은 것은 흙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철은 강하고 흙은 약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세라믹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한 물질이다. 세라믹은 철보다도 더 강하다. 그렇다면 금신상의 해석을 바꾸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금신상의 물질은 점점 약한 것으로 가는 것으로, 덜 귀한 것으로 바뀐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도를 생각하면 금신상은 점점 더 강하는 매체로 바뀌어간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가장 약해보이는 뜨인 돌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세라믹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중요한 영역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용도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어간다. 지금 세계는 세라믹의 소재가 되는 물질 중에 하나인 희토류 확보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일본은 세라믹 시장의 60%를 장악한다.

(14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현재 상당히 외롭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와서 이제 6개월이 되었는데 새로운 미국이란 환경 속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나 친척도 별로 없고 교회에 다니긴 하나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는 가운데 한없이 외로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플러톤에서 J. K

A: 인간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인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꼭 혼자 있어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란 넓이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싸인 사람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과거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녔던 엘비스 프레슬리는 외로움과 허무함 이기

외로운 시간, 하나님 찾고 새로움 만드는 재도약 삼아야

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렸고 우울증에다 마약중독까지 겹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억만장자 하워드 휴즈는 생애 마지막 10년을 별장이 있는 섬에서 마지막 10년을 혼자 쓸쓸히 보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 외로움의 문제를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담을 만드신 후에 다른 동물이나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인간은 외로운 것처럼 보여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배필로 주셨습니다. 진정한 삶은 혼자서 아닌 다른 사람과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서 혼자 홀로서기만을 고집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됩니다. 현대의학은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궤양, 정신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조사 결과 심장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가족 친지들이 많이 와서 간호해준 환자들보다 간호하고 방문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환자들 사망 확률이 3-5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로운 것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리더들은 하나님같이 인생의 외로운 광야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과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 곁을 떠나 객지에서 공부하며 외로울 때에 오히려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오히려 은혜체험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야곱도 부모 형제를 떠나 외로운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은 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는데 자신은 무력증에 걸려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석에 몇 년을 누워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고 엄청난 비즈니스에 관련된 책을 읽어 후에 지식 경영자가 되는 기반을 닦았다고 합니다.

인생이 외롭다고 그 시간을 그냥 앉아서 신세타령만 하며 허송세월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가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책들, 들을 수 없는 테이프, 익힐 수 없는 기술들,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외롭다고 한숨만 쉬지 말고 주어진 빈 시간을 극대화 하여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베스트셀러 실낙원과 복락원은 17세기 영국이 낳은 문헌 존 밀턴이 실명에 임박해서 고난과 싸우는 가운데 쓰여졌다고 합니다. 밀턴의 생애에 가장 외롭고 어두운 시간에 인류문학사의 가장 찬란한 선물을 탄생케 하는 요람역할을 한 것입니다.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도약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담임목사 청빙

- 자 격
 - 1). 학력 : 일반대학교 및 정규신학 대학원(M.Div.)졸업자
 - 2). 경력 : 목사 안수후 목회 경력 또는 선교사 경력 소유자
 - 3). 특 기 : 한. 영 이중언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1). 자필 이력서(3개월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첨부) 1부
 - 2). 본인 소개서(성장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신앙간증 포함) 1부
 - 3). 사모 소개서 1부
 - 4). 목회 철학, 계획서 및 비전 1부
 - 5). 존경하는 목사님 또는 신학교수 2분의 추천서 각 1부
 - 6). 학위증명서 각 1부 - 2차 서류제출
 - 7). 건강진단서(사모포함)-2차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14년 4월 30일
- 제 출 처 Agape Mission Baptist Church
Attn :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1635-A Palolo Avenue
Honolulu, Hawaii 96816
Email: caseyohhi@hotmail.com
- 기 타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결과는 개별 통지함.
 - 2). 지원관련문의는 교회: 808-735-0011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마라티(MARATHI)



인도에서 마라티어를 사용하는 4개 종족의 통합 프로파일. 마라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도 중부의 서해안 근처, 주로 마하라슈트라와 주변 주에 자리 잡고 있다. 마라티 종족들에는 4개의 미전도종족들이 포함되는데, 7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라르 마라티족(브라마니족), 단와르족, 6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마라타족, 그리고 타쿠르족이다. 각 종족은 마하라슈트라 주의 공식적인 마라티어의 각 방언을 사용한다. 마라티 종족들은 각 거주지나

형태가 다 다르다. 일부 부족들은 산지에서 사는 한편, 다른 부족들은 데칸 고원에서 살아간다. 지주와 농토 경작자가 있는 한편, 정글 마을에서 살아가는 문명의 부족들도 있다. 이 부족들 가운데서 모든 수준의 사회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각각 다른 종교적 관습과 문화전통을 가지고 있다. 마라티족은 고대 마라타 왕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왕국은 위대한 지도자인 마라타와 영웅인 시바지에 의해 시작됐으며 왕국은 17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권력을 떨쳤다.

삶의 모습
일반적으로 마라티족은 시골벽적인 것과 맛있는 음식, 좋은 포도주, 성대하게 치루는 의식과 축제를 좋아한다. 그들은 남자의 용기

와 여자의 순결을 중히 여기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대부분이 힌두교이기 때문에 카스트 계급으로 나뉘어지며, 이것은 인도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다. 카스트 계급은 거룩한 경전에 관련된 정결의 정도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4개의 카스트가 주축이 되는데, 최상층으로는 "브라민"(Brahmin)이라는 사제 계급이 있다. "크샤트리아"(Kshatriya)는 무인 계급으로 강하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계층이며, 그들의 역사가 다만 그들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번째 계층은 "웨이쉬"(Weish)이며, 이들은 상업적인 또는 사업을 하는 부류이다. 최하층의 계층은 "슈더"(Shooder)이며, 농부와 경작자들로 이루어진다. 마라티족들은 정부연금 수혜자, 지주, 군인들로 이루어지지만, 대다수는 최하층의 농부들이다. 단지 일부만이 지배계급으로서 일부는 상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있거나 정부부처에 있다. 고원 지역에서는 밭을 갈기 위해 황소가 사용된다. 최빈곤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부들이 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농장의 축사에서 키우며, 때때로 집 안에서 기르기도 한다.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쌀, 렌즈콩, 채소류. 아랍해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마라티족 마을은 남북으로 뻗은 긴 거리와 양변의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가옥에는 뜰이 있고 그 주변을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다. 데칸 고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집된 마을을 이루고 있으며, 각 마을에는 힌두교 사원과 부유한 지주의 저택이 있다. 농부들은 개인 땅이 없다. 마을 둘레에 농토가 있어 밭에 나가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재배한다. 정원 근처에는 임시 거주지가 있다. 대부분의 마라티족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며 술도 마시지 않지만, 남자들은 대개 담배는 피운다. 타쿠족과 같이 산지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은 실제로 평지에 사는 사람들과 왕래가 없다. 그들은 사냥꾼들이며, 자기들이 잡은 동물들을 먹는다. 산지 사람들 대부분은 평지 사람들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

신앙 마라티족 대부분은 힌두교도다. 그들의 종교는 신앙보다는 행위에 의해 더 정의될 수 있다. 힌두교는 다신교이며 따라서 여러 신을 숭배한다. 그들에게는 많은 경전이 있는데 기도, 찬양, 제의와 신학교리, 힌두교 신에 대한 신화, 철학작품, 종교적 또는 사회적 규율 같은 것을 담고 있다.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다. 힌두교도들은 동물의 형태를 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며 소가 신성시되는 외에도 원숭이와 뱀, 그 밖의 동물들도 숭배의 대상이 된다. 힌두교에서는 영혼은 불멸한다고 가르친다. 신체가 죽게 되면 영혼은 환생한다. 이 환생의 과정은 "윤회"라고 불리며 영혼은 동물이나 인간의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이 선한 삶을 산다면 영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태어나며, 악한 삶을 영위하면 영혼은 보다 낮은 상태로 태어나거나 벌레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다. 한 사람의 윤회는 그가 영적인 완성을 이

를 때까지 계속된다. 그리고 나서 영혼은 그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다. 마라티족 가운데 존재하는 소수의 무슬림들(8%)은 무슬림 침략자들의 후손들이며, 18세기에는 모굴 제국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들은 이슬람교의 하나피파에 속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는 상당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개발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매우 낮은 생활수준을 갖고 있다. 마을의 많은 가옥들에는 수도나 전기가 없다. 1900년대 초 인도의 인구는 1년에 약 1천8백만 정도 증가했다. 이것은 심각한 인구과잉을 유발하며, 빈곤한 생활조건을 가속화하고 있다. 마라티족은 그들의 역사상 일련의 부침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평안을 아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으로써만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십계명 기념비 지켜라" 주민집회

미국의 한 도시 주민들이 십계명 기념비를 전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미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아이다호 주 샌드포인트의 주민 500여명은 지난 20일 시립공원인 '패닌파크'에서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캐리 로건 샌드포인트 시장이 공원 관리부서에 십계명 기념비 대체 장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시와 무신론단체에 반대하는 서명 운동을 벌였다. 집회에 참여한 글레디스 라슨 씨는 "마구잡이로 시비를 거는 무신론단체의 요구에 시가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분노했다. 마이크 클라크씨는 "40년 역사를 담은 기념비를 지키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주민 대표는 이 서명을 토대로 시에 기념비 유지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닌파크에 설치된 높이 150cm 정도의 대리석비는 1972년 한 시민단체가 순경 경찰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했다. '종교로부터 자유 재단(FRF)'은 지난해 11월 "공공장소에 종교적 의미를 담은 기념비를 세워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불만이 3~4건 접수됐다"며 기념비를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요구했다. 샌드포인트 시는 송사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이전을 검토했다. 유권자단체 티파티 아이다호 지부는 "기독교 정신에 바탕한 건국이념을 감안했을 때 십계명 기념비는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수적 크리스천 법률가단체인 리버티인스티튜트는 FFRF가 샌드포인트 시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미시간 주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미시간 주의 동성결혼이 연방지방법원에 의해 21일 허가된 후 하루 만인 22일, 항소법원에 의해 효력이 중지됐다. 지방법원의 버나드 프리드먼 판사는 2004년 미시간 주민 59%가 찬성해 임했던 동성결혼 금지법을 폐기했지만, 주정부가 즉각 항소하며 효력 중지를 요청했고 제6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미시간 주는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허가하는 18번째 주에 들지 못하고, 그보다 앞서 동성결혼이 지방법원에 의해 합법화됐지만 항소 중인 유다·오클라호마·버지니아 주와 동일한 신세가 됐다. 유다·오클라호마·버지니아·미시간 주는 모두 주민투표를 통해서 동성결혼을 금지했다. 유다 주에서는 주민의 66%,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76%, 버지니아 주에서는 57%, 미시간 주에서는 59%의 찬성을 얻었다.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동성결혼법의 효력은 주마다 약간씩 다르다. 지난해 12월말 유다 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후, 이 문제가 제10순회 항소법원에 항소되기까지 보름 동안 약 1천3백쌍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현재는 상급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동성결혼은 금지된 상태지만, 이 1천3백쌍은 소위 동성결혼이 합법인 보름 동안 결혼증명서를 받았기에 이들의 결혼 지위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10순회 항소법원의 관할 지역인 오클라호마 주의 경우도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 유다 주의 사례가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여부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한적 판결을 내렸다. 이런 추세 속에서 버지니아 주는 동성결혼을 합법이라 판결하면서도 제4순회 항소법원의 판결 때까지 효력을 중지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버지니아 주의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동성결혼 합법화가 뒤집혔지만 지방법원의 판결에서 제한적 효력을 명시하지 않아, 유다 주에서 처럼 지방법원 판결에서 항소법원 판결까지 하루 만에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은 커플 323쌍의 결혼 지위가 불분명해졌다.

40년간 두 마리로 노방전도 동영상 '감동'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George Street)에서 노방 전도를 했던 프랭크 제너(1903-1977)씨에 관한 실제 내용을 담은 동영상인 한국 교회를 달구고 있다. "선생님, 구원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는 이 두 마디와 전도지 한 장으로 40년 동안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매일 10명의 행인에게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했다. 계산하면 모두 14만6000명에게 전도지를 쥐어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전도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먼저 스스로 "나는 열매 없는 열실이었노라"며 낙심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 자신을 방문한 영국 브루너 마우스 침례교회의 프랜시스 딉슨 목사로부터 자신의 전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이들의 만남이 있기 3년 전쯤이었다. 런던의 한 교회에서 딉슨 목사가 주일예배를 집례하고 마칠 때 한 성도가 간증을 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간증자는 자신이 얼마 전 호주 시드니에서 백발의 노인이 건네준 전도지를 받고 고된 끝에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고 고백했다. 간증 뒤 2주쯤 지나서 딉슨 목사는 호주의 한 교회 집회에서 '시드니 조지 거리의 노인'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호주 퍼스의 한 교회와 영국 케스윅에서 열린 사경회, 미국 애틀랜타 조지아와 인도에



서 열린 선교사 대회, 호주 시드니의 외교관 집회에서도 동일한 간증이 이어졌다. 저마다 25-35년 전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만난 노인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고백했다. 놀라운 간증이 꼬리를 몰다 딉슨 목사는 직접 호주 시드니로 날아가 수소문 끝에 제너씨를 만났다. 당시 70대 중반의 제너씨는 파킨슨병을 앓는 연약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도박 중독에 빠졌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해 전도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승승장구

저예산 기독교 독립영화 'God's Not Dead(하나님은 죽지 않았다)'가 미국에서 개봉 3일 만에 856만 달러를 벌어들이며, 상영관 1000개 이하의 영화 가운데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 3월 21일 개봉한 직후 그 주간 동안 전체 영화중에서도 무려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기독교 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박스오피스의 3월 21일부터 23일까지의 집계 따르면, 전체 영화 중 1위는 'Divergent', 2위는 'Muppets Most Wanted', 3위는 'Mr. Peabody & Sherman'이다. 이 영화들이 약 3,200개부터 4,000개에 달하는 상영관을 확보하고 있는 데 비해, 'God's Not Dead'는 고작 780개 상영관을 확보했지만 기적에 가까운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영화 'Son of God(하나님의 아들)'은 현재 11위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이 영화는 한 크리스천 대학생이 무신론자 교수에게서 하나님의 존재와 기독교를 증명하라는 도전을 받으며 시작된다. 이 영화의 인기는 상영관 1000개 이하의 영화중에서는 역사상 최고이며, 미국 역사상 개봉된 모든 신앙 관련 영화 가운데서도 7위에 달하는 성적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어 모았던 영화 '노아(Noah)'는 성경의 진실과는 무관한 반기독교적 영화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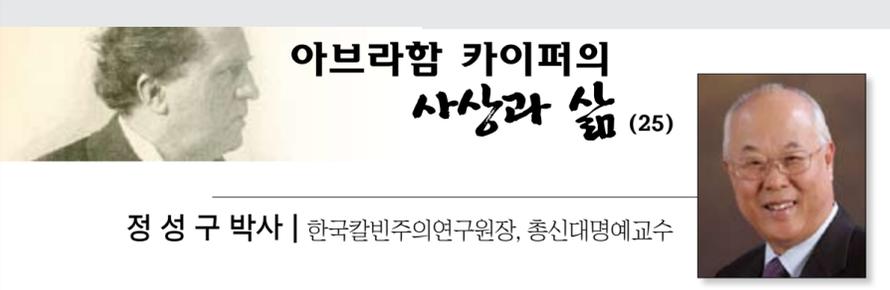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5)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정치적 리더십

앞서 살펴보았듯이 노정치가 흐른 반 프린스터와 젊고 패기에 넘친 31세의 목회자 카이퍼와의 만남은 화란의 새로운 역사를 썼고, 기독교 정치에 있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꽃피우게 했다. 흐른 반 프린스터는 훌륭한 정치가이자 역사가이자 칼빈의 사상과 칼빈주의 신앙을 따라 19세기의 일그러진 교회와 사회를 성경적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른바 '군대 없는 장군'이란 별명이 있었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극히 소수였다.

흐른 반 프린스터는 위대한 역사학자로서 불신앙과 혁명(Ongehoof en Revolutie)을 써서, 혁명은 모두 하나님 없는 불신앙 운동에서 기인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흐른의 경우는 대중적 정치가도 아닐 뿐더러 조직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녀가 없는데도 평생 외로운

투쟁을 했다. 그런데 흐른이 세운 반 혁명당이 카이퍼에게 넘어가자 사정은 달라졌다. 카이퍼는 신학자이자, 불을 튀기는 설교자요 대중을 사로잡는 연설가요 그는 명 문장가로서 대중들에게 감동은 주는 글을 썼다. 그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인데다 사람을 끄는 흡입력이 있었다. 카이퍼가 당을 책임지자마자 조직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모여 들고 체제가 정비되었다.

카이퍼는 조직의 명수인데다 정치적 리더십이 대단했다. 카이퍼가

상, 계몽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철저히 칼빈주의 사상으로 돌아가도록 힘차게 외쳤다. 카이퍼는 천상 대중적 정치가였다. 그가 설교하거나 강연할 때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활력을 주고 새 힘을 불어 넣었다.

사람을 움직여 감동을 주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말이요 다른 하나는 글이다. 카이퍼는 천부적 대중 연설가에, 그는 당시에 De

Heraut지와 De Standaard지의 편집장으로서 하루도 빠짐없이 논설과 명상록을 쏟아내었다. 그는 일평생을 그리웠다. 그래서 카이퍼는 대중들을 말과 글 양쪽으로 조여 가면서 역사를 변화시켜 갔다.

정치는 지지자들이 많아야 한다. 카이퍼는 화란의 교회와 사회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서 역사의 배후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했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외쳤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된다고 했다. 이는 일찍이 16세기 요한 칼빈이 시도했던 바로 그 메시지였다.

카이퍼는 칼빈주의 정치의 창설

촉자로 있었다. 말 그대로 카이퍼는 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졌다고 하리만큼 그는 모든 면에 독창적이면서 역동적이었다.

카이퍼의 영적인 에너지는 강이나 샘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대한 폭포와 같았다. 칼빈주의 정치가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지혜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모든 삶의 기초로 생각하는 칼빈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의 현실에 있어서 미니(작은) 정당으로는는 발언권이 약할 뿐 아니라 집권당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연정(聯政)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는 좌파 정당이 거

학교의 신학부 교수로서 또 기독교 주간지 De Heraut의 편집장으로 자연히 가톨릭과는 비판적 관계였다. 특히 카이퍼는 1872년 성 바돌로메(Saint Bathalomew)축제 일 300주년에 연설했다. 가톨릭교회가 칼빈주의자들이 휴그노파 성도들을 대량 학살한 그 날을 기념해서 소책자를 발행했다. 가톨릭의 비 성경적이고 교권수호를 위해 저질러진 악한 행동을 역사적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어떻게 가톨릭당과 협력이 가능했을까?

문제는 당시에 정당 중에 좌파 정당이 상층세를 타고 있음으로 헌법을 고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가톨릭당과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입장이 서로 달랐지만, 교육법 개정에는 서로가 같은 의견을 가졌다. 정부는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상체계를 주입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카이퍼가 이끄는 반혁명당은 그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정부의 간섭 없이 성경적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립학교 법을 만들려고 했다. 가톨릭당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교육법을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당이 서로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두 당은 서로 정책과 신앙이 다르지만 사안에 따라서 협력하되 비판할 것은 서로 비판한다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반혁명당 이끌며 언론인, 연설가, 국가위 의장, 전략가로 활약 성경적 신앙 가르칠 수 있는 사립학교법 제정엔 가톨릭과 동맹

자로서, 반혁명당을 이끌었다. 그 당은 비록 11명의 하원의원을 갖고 있었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정당이었다. 카이퍼는 국가위원회 의장으로서 정당을 지도해갔다. 그때도 카이퍼는 신문 발행인이었고 편집장이었다. 그리고 국민대회 의장과 주 연설가로 최고 수준의 공동전략가, 선거운동의 창조 연설자, 정치 전반의 전략가 그리고 반혁명당과 국회 원내대표, 정치 관

의 절반을 차지했고 우파 정당으로 반혁명당과 가톨릭 당이 있었다. 만에 하나 두 당이 협력을 한다면 어떤 법률 통과를 위해서 상당히 유리하고 승산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반혁명당은 가톨릭당과 연합전선을 펼 수 없을 것이다. 카이퍼는 기회 있을 때마다 로마가톨릭의 오류를 지적하는데 앞장섰다. 카이퍼는 개혁신교회의 목사이며 자유대

칼럼 음악목회 (24)

영성과 예술성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통해 아주 많이 들어온 은혜스러운 말이 '영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성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용하는 사람들조차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영성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키백과에서는 영성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명상, 기도, 묵상 또는 관조(contemplation)를 포함한 영적 수행들(spiritual practices)은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inner life, 내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다. 영성(靈性,

Spirituality)을 믿고 이에 의거하여 실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영적 수행들은 바르게 수행되었을 때 그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경험들에 도달하게 한다고 여겨진다. 즉 더 커다란 실재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을 통해 더 커다란 자아(自我, self)에 이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는 사람들의 공동체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그리고 자연이나 우주(cosmos)와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이나 신성(神性)의 영역(divine realm)과 연결 또는 합일되는 경험 등으로 영성(靈性, Spirituality)은 종종 삶에서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인 것으로 경

험되고 있다. 또한, 영성은 비물질적 실재들을 믿는 것이나 우주 또는 세상의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immanent nature) 또는 초월적인 성품(transcendent nature)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설명해도 어렵고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영성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영성은 곧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태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다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현재도 사랑하고 계시는 그 분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본다면 나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음악의 범주 안에서 영성을 논하고자한다면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인 찬양 또는 영성이 있는 찬양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찬양이 영성이 있는 찬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누구도 찬양 자체를 영성이 있는 찬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찬양하는 사람의 영적인 태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제가 '새 노래'에 대한 글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질문입니다. 마는 무엇이 새노래인가? 새로 작곡된 곡이 새노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거듭난 영으로 부를 때, 비로소 새노래가 되는 것처럼 영성이 있는 노래란 영성이 풍성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영성이 깊은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음악적으로 미흡해도 기교가 부족해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 영성이 깊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의 제물도 받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부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정의된 영성이 깊은 사람의 찬송은 기교도 연습도 필요 없다는 말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다 된 것이 아니냐?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같이 영성만이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찬양을 경솔히 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태도로 찬양을 드린다면 그 영성에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

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음악을 지으신 목적과 그 음악을 다루고 발전시켜 고도의 수련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하는 자들을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훌륭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더욱 주님을 알고 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한다면 이 찬양이야말로 곧 영성이 깊은 찬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속 음악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술성 있는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음악에서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영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교회음악사역자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진정으로 영성이 뛰어난 음악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연락처: (714)699-0210

담임목사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
2.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3.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신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합니다.
4. 목회경력10년 이상이신분 (담임목사경력 3년 이상 포함)
5.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6.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

1.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2.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력, 목회비전)
4. 추천서 2부(동봉)
5. 최근 6개월 내 설교 DVD 2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웹사이트 www.ckbch.org 에서 다운받으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Att. HONG KI HAK
 문의: 청빙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라서 비교해 '만들어낸' 데이터이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와 사람의 유전정보들 중에서 가장 닮은 부분 몇 조각만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된 유전정보는 전체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아주 적은 부분인데 이런 정보는 감추고 99%만 강조하여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DNA를 다 비교하면 겨우 70% 정도만 비슷하다. 사람과 침팬지는 엄청나게 다르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조상이 같아서가 아니라 같은 창조자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루시는 사람의 직접 조상으로서의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USA Today, 2001년 3월 21일).

아르디(Ardi)와 아이다(Ada) 루시 이후 일간신문 토픽가자로 실려, 이른바 인류의 조상들로 법석을 떨었던 것이 아르디와 아이다이다. 아르디는 2009년 사이언스지(10월 1일) 표지 모델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어 한국 신문들에도 '440만년 전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 뼈들은 36마리의 동물 뼈를 조합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발가락은 나무 타는데 꼭 필요한 모습으로 직립을 하였을 것이라 주장이 심하게 과장되었음을 보여준다(Scientific American, 2009년 11월 19일). 아이다는 아르디보다 5개월 먼저 2009년 5월에 다윈을 기념하여 Darwinius masillae라는 학명을 부여하며 판파레를 울리며 인류의 진화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광고를 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New Scientist, 2010년 3월 4일).

루시(Lucy) 그동안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되었던 유인원들은 교과서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더 좋은 유인원이 발견되어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이다. 라마 피테쿠스, 필트다운인, 네브러스카인, 자바인 등이 수십년 동안 교과서에 등재되어 인류 진화의 증거들로 행세를 했지만 이들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과서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 교과서를 배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부분 죽을 때까지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게 된

181. 창조론의 기초(31) 사람 vs. 꼬리 없는 원숭이를

'유인원(類人猿)'이란 단어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혼란되어 있는 것 같다. 가상의 진화 역사 속에 진화중인 인류 조상의 유골이라고 주장되는 동물을 '유인원'이라 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침팬지, 고릴라, 혹은 오랑우탄같이 꼬리가 없는 원숭이류들도 '유인원'이라고 한다. 사실 '유인원'이란 단어는 사람을 닮은 이 두 부류의 동물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인데 한 부류는 멸종한 것이고 다른 한 부류는 아직도 살아 있는 것이다.

까운 동물을 침팬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고릴라 중에서 침팬지에 더 가까운 동물은 고릴라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말이다! 정말 그럴까?

머리와 척추 사람은 머리 아래에 척추가 연결되어 있어 머리를 이고 직립 보행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다른 유인원들은 머리 뒷편에 척추가 연결되어 있어 머리를 들고 다니는 모양이다. 사람의 척추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S자 모양이

잇달아 발견된 유인원은 인류조상이 아니라는 증거 속속

머리 아래 척추 연결은 오직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뿐

요즘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보는 위키백과에서는 유인원을 이렇게 소개한다. "영장류의 사람 상과에 속하는, 꼬리가 없는 종을 말하며 이는 사람도 포함한다. 2과 8속 24종으로 나눈다"라고 되어있다. 영장류(primates)란 구부릴 수 있는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진 동물들을 말한다. 이 영장류들 중에 꼬리가 있는 것은 원숭이(monkey)라고 부르고 꼬리가 없는 동물들을 유인원(apes)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 과학자들은 사람을 유인원으로 분류한다.



사람 vs 유인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비교 필만한 생명체는 없다.

다. 그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자신은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지금 교과서에 실려 있는 대표적인 인류의 조상 유인원이 루시(Australopithecus afarensis)이다. 루시의 골격은 1974년 미국의 고인류학자 도널드 요한슨에 의해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어 약 320만년 된 인류의 조상이라고 발표되었다(물론 이 연대는 측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패러다임으로 결정 된 것이다). 루시의 상체는 침팬지와 유사하여 주먹으로 걷는 너클 워커(knuckle walker)다. 그런데 다리가 직립보행을 하는 것처럼 생겼다 해서 기어 다니다가 두 발로 일어서고 있는 진화의 증거가 되는 중간화석이라고 대대적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앞을 한 교과서에서 사라진 다른 인류 조상 유인원들처럼 루시의 명성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 골격은 보노보(bonobo) 침팬지처럼 보인다... 지난 10년간

고 있는 모습을 보나, 유전정보를 보나, 사람은 다른 유인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러나 침팬지와 고릴라 그리고 오랑우탄 더 나아가 꼬리를 가진 원숭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별 차이가 없다. 과거에 살았다는 유인원들은 어떤가? 화석들이 온전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상을 곁들여 사람으로 진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기려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되면서 언제나 결론은 하나였다. "아니었나봐!" 만약 화석들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많이 발견된다면 그 결론은 더욱 확실해질 것이다. 사실 진화론은 1980년부터 중간화석 찾는 것을 포기하고 중간화석이 필요 없는 즉 증거가 필요 없는 새로운 진화론(단속평행이론) 시대로 들어갔다. 아직도 사람의 조상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과학자들은 아직도 진화되지 못한 진화론을 믿고 있는 뒤쳐진 과학자들이다. 아니면 생계를 위한 직장인들일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구원자 마지막 아담이다.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미운 오리새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미운 오리새끼"는 사실은 백조인 새가 부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오리 때에 섞여서 자신이 오리인줄 알고 살아가며 겪는 아픔을 다룬 내용이다. 다른 오리들로부터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박을 받고 슬퍼하다가 자신의 동료 백조들을 만남으로 자신이 미운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동화이다. 이제는 성인이 된 둘째 아이가 어릴 때 "미운 오리새끼"를 읽어주면 훌쩍거리면서 "엄마 한번만 더 읽어줘..." 하던 기억이 난다.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는 우리에게 크리스천의 자아상을 생각하게 한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실은 백조인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 자신이 마치 미운 오리새끼인줄 알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같다. 건강한 자아상을 지니는 것은 심리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더 나아가 영적인 삶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우리가 지니는 자아상은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을 믿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의 자아상은 세 가지 타입에 의해 형성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의해서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교육심리학적으로는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 즉,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어린시절 우리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심한 열등감에 일생 시달리기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안고 계속 괴로워하며 살아가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벌, 외모, 성취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낮은 자아상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출애굽을 지시받고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출3:11)라고 말했고,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삿6:15)라고 얘기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렐1:6)고 대답했다. 나는 이 성경의 인물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과업을 볼 때 한없이 왜소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의 참된 자아상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쓸 일이 줄어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받는 자녀이며 그 자녀됨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나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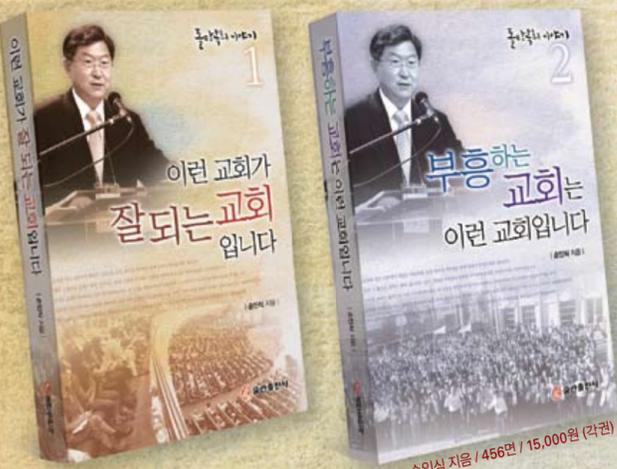
그러면 성경적인 우리의 자아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정도로 우리는 귀한 존재이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소유로서 특별한 보물이라는 뜻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마치 찢먹는 자녀를 품에 안고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처럼 사랑이 넘쳐흐르는 눈인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참된 자아상 즉,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학교성적, 외모, 성격 등)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미운 오리새끼가 아닌 백조의 모습으로 어깨를 펴고 세상이 부추기는 타인과 비교하여 형성되는 그릇된 자아상을 벗어나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강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얼바인에서 들려오는 돌링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희배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학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돌링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승욱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하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가람이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링'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딸 돌아온 탕자들이 돌링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링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



목회서신

“몽땅 다 쓰고 죽어라”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어느 겨울, 간암 말기의 59세 환자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커다란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원장님 앞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6개월밖에 못산답니다. 여기 머물며 이 가방에 있는 돈만이라도 다 쓰고 죽을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시장에서 옷장사로 돈을 벌어서 자식들 키우고 시집 장가 보내고 갔는데 그만 덜컥 간암이 걸렸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재산분배 문제로 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돈만 버는 자식들을 잘못 키웠구나! 크게 반성을 했습니다. 또한 가난이, 모으는 것이 습관이

되던 시장에서 쌀 막걸리를 국밥을 먹으며 돈만 모았던 지난날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것을 서약한 뒤에, 현금 5천만원이 든 가방만을 들고 생의 마지막 6개월을 보내는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들고 온 5천만원도 다 써보지 못한 채 호스피스 요양원에 온지 5개월 만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

았습니다.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저술한 ‘스태판 폴란’은 말합니다. ‘최고의 자산 운영이란 자기 재산에 대한 성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트로피처럼 모셔두지 않고, 행복을 위하는 일에 쓸 줄 아는 것’이라고. 그는 멋진 삶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오늘 당장 그만뒀다(Quit Today). 똑같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하지 말라. 2-3년마다 돈이 돌리는 곳을 찾아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기업은 당신에게 평생을 약속하지 않는다, 당신은 직장에서 ‘용병’일뿐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서슴없이 옮겨라. 둘째, 현금으로 지불해라(Pay Cash). 카드 사용하면 자기에게 과도한 물건도 덩서 사게 된다. 맘 흘러 번쩍한 지폐로 물건을 사라. 저도 모르게 낭비가 없어진다. 셋째, 은퇴

하지 말라(Don't Retire). 은퇴한 하면 ‘영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다는 환상에서 깨라. 20년간 통통참은 연금으로 연명 하면서 빈둥거리는 것뿐이니까. 그러다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정신도 녹는다, 65세를 넘긴 뒤에도 새로운 일을 맡아두지 않을 수 있다. 넷째, 다 쓰고 죽어라(Die Broke). 만약 당신이 앞의 3가지 충고에 따라 살아왔다면 이미 충분한 재산을 모았을 것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 말고 여생을 최대한 즐겨라. 유산이 없으면 자식들이 돈 가지고 다들 일도, 가산을 망진할 일도 없다. 다 쓰고 죽으라는 말은 결국 후회 없이 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가 밭의 큰 소출로 기뻐하며, 곡식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자!”(눅12:19)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눅12:20)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명예, 권세, 학위, 건강, 자녀가 우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내가 바랐던 것을 다 얻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마음껏 다 쓰고 죽으면 좋을 것 같지만,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죽으면 후으로 돌아갈 썩어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복락의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1:14). “책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요6:27).

뉴저지 교협·목사회 협력다짐

21일 양측 임원들 상견례 갖고 합의문 작성

뉴저지한인교협(회장 김동욱 목사)과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이병준 목사) 임원들이 상견례를 갖고 뉴저지 지역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세워나가기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뉴저지 교협과 목사회 임원들이 모임을 갖고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21일 레오니아에 위치한 ‘가야식당’에서의 만남은 교협 측에서는 회장 김동욱 목사(뉴저지만교교회)와 총무 박근재 목사(시나브로교회), 서기 장동신 목사(오늘의교회)가 참석했고, 목사회 측에서는 회장 이병준 목사(행복한교회)와 부회장 박찬순 목사(임마누엘성결교회), 총무 권형덕 목사(잠아름다운교회), 체육위원장 이춘기 목사(하나교회), 그리고 교협과 목사회의 회장을 지낸 김경문 목사(성은장로교회)가 참석했다.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 상견례에 이어 오찬 후, 양 측의 임원들은 서로의 사역 일정을 교환하고, 중복되고 겹치는 일정은 합의하에 수정 조정했다. 토론을 마친 양 측 대표들은 지속적인 유대 관계 속에 함께 동역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이 합의했다.

(1)뉴저지한인교계의 연합 행사는 교협과 목사회가 공동 협력한다. 교협 주최 시에는 목사회가 후원하고, 목사회가 주최할 시에는 교협이 후원한다. (2)양 측의 임/실행위원 중에 양 측의 임원이 포함되도록 배려한다. (3)양 측의 정기모임에 임원 교류 참석을 정례화 한다. (4)중복되는 사역은 양분되지 않도록 협력 조정하기로 한다.

김동욱 교협회장은 “교협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회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

이를 위한 일환으로 교협회관 건립을 위한 골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준 목사회 회장은 “오늘 모임이 뉴저지한인교계의 활성화와 협력 기반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문 경증회장은 “목사회의 설립 취지가 교협의 적극적인 후원을 위한 것이므로,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동역의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뉴저지 교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좋은 땅(가난한 사람)에 심으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3월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는 지난 19일 3월 월례회를 갖고 타 지역 아동후원 등 기타 안건을 논의 결정했다.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린 월례회는 박진하 목사 사회로 유상열 사무총장의 업무 보고와 안건토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뉴욕일보 돌출광고 매일 게재 △조지아 지역 아동후원을 위해 후원약정서 및 오병이어 우송 △대만 지역 아동후원 확정위해 영어 및 중국어 후원약정서 준비(박마이클 목사 주도) △콜롬비아 아동선교센터 방문: 8월 12-15일, 후원아동 가정

방문, 마을집회 등 현지 선교사와 준비사항 논의 △홍보대사 엘피스 찬양단(단장 김정길 집사)이 주관하는 후원의 밤 제반 준비는 유상열 사무총장에게 일임.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기도 장경례 목사, 설교 김수태 목사, 축도 박성원 목

회(유원정 기자)

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수태 목사(뉴욕어린양교회 담임)는 “재정의 기름부으심”(막 4:1-9)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성경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강조한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지만 바르게 심는 것이 중요하다. ①하나님께서 물질로 사용하는 사람, ②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난하게 사는 사람, ③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④세상적으로 살지만 물질이 풍부한 사람 등 네 부류가 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에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좋은 땅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환경에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다만 교회/성도가 지켜야 할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지배해야 한다. 우리를 통해 만물을 채우시려는 하나님을 믿고 일을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모임은 4월 24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효성교회(담임 김영환 목사)에서 열린다.



교회일보 창간5주년 기념예배를 마치고 순서말은 이들이 기념촬영 했다.

한인 교회 목회자 섬기는 소통의 통로...

교회일보 창간5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 성료

교회일보(발행인 우병만 목사)가 창간 5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축하행사를 열었다. 발행인 우병만 목사는 “지난 5년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5년 동안 한인교회와 목회자, 어려운 이들을 섬겼고 앞으로 10년을 지나기까지 섬김의 도를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한인사회와 한인교회가 소통하며 서로를 세워 나갈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일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에서 열린 행사에 앞서 드린 기념예배는 엘피스찬양선교단(대표 김정길 집사)의 찬양에 이어 김연규 목사의 사회로, 기도 황영송 목사, 특송 밀알선교중창단, 성경봉독 박영진 장로, 설교 송일현 목사(한국 보라성교회), 봉헌송 김건수 신성, 김정규 학생, 봉헌기도 양민석 목사, 특별찬양 뉴욕목사남성중창단, 축도 양승호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축하행사는 박준수 목사 인도로 축하공연에는 바이올린 유안나 선생의 오픈연주에 이어 뉴욕권

사선교협창단의 “우물가의 여인” 주제의 특별 공연이 이어졌다. 축사는 김승희 목사 뉴욕교협회장, 황의준 세기총 미주삼일회장, 이병준 뉴저지목사회 회장, 박근재 뉴저지교협 총무, 이만호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장, 이광희 A/G한국총회 총회장, 전희수 미주여성교역자협 부회장과 한인 직능단체장들과 뉴욕주 의원들이 맡았다. 감사패 전달은 이종식 목사, 송일현 목사, 정영근 목사(원당소망교회)에게, 뉴욕가민자연맹 스티븐최 사무총장, 뉴욕가정상담 윤정숙 소장,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김광석 대표에게 공로패를, 킨즈희망나눔재단 김진철 사무총장 격려패를 전달했다. 설교에 나선 송일현 목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담아 전할 때는 어떤 매체가 되기를 바란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달하라”고 당부했다. (유원정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주최하는 두번째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가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열린다. 사진오른쪽부터 김영산 LA한국문화원장, 이종열 소망갤러리 준비위원장,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장, 이경미 소망갤러리 준비위원장, 최정철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소망소사이어티 2회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

5월 9-22일 LA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모)는 LA한국문화원(원장 김영산)과 함께 두 번째 “생명살리기, 소망갤러리”(준비위원장 이종열, 이경미)를 개최한다. “생명 살리기, 소망갤러리”는 한인들이 집에 소장하고 있는 한국 전통 공예품, 도자기, 그림 등 골동품을 기증 받아 전시회를 열고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이웃돕기에 사용하는 기부 행사다. 유분자 이사장은 “소망갤러리는 이민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유 이사장은 “50여년간 이민생활하면서 소장하게 된 미술품 등 소품들이 있다. 바쁘게 살면서 그 소품들을 감상할 여력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 그때 이 소품들을 통해 즐거움을 얻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 소품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팔아 얻은 수익금으로 함께 사는 자들을 돕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 시작하게 됐다. 감사하게도 첫 번째 갤러리 행사가 잘 마쳐지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106여명의 시민들

의 물품 기증 동참과 유 이사장의 50점의 소장품으로 LA한국문화원과 UC어바인 클레버아트스쿨에서 펼쳐진 첫 번째 소망갤러리 행사에 선 총 4만4천500달러가 모였으며 이 중 행사비를 제외한 3만5천74달러를 각각 불우한인들(2만5천달러)과 유진벨재단(1만달러)에게 전달하고 공개보고를 실시해 투명한 기부문화의 선례를 남긴바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 LA한국문화원 2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 소망갤러리는 현재까지 한지공예가 이종국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150여점의 작품들이 모인 상태다. 소망갤러리 수익금은 아프리카 차드 어린이 교육을 위한 소망유치원 4번째 학교 설립, 한인 독거노인 지원, 유진벨재단을 통한 북한 결핵환자 치료비 후원 및 소망소사이어티 운영자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림, 소품, 도자기 등 물품을 기부하길 원하는 이들은 소망소사이어티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562)977-4580 www.somangociety.org (박준호 기자)



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열린 공동의회 모습

선한목자장로교회 PCUSA 교단탈퇴

23일 공동의회에서 91% 찬성 얻어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대형 목사)가 지난 23일 PCUSA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를 열고 91% 찬성을 얻었다. 본 교회는 PCUSA 한미노회와의 교단변경을 합의했으며 이 합의안에 대해 23일 노회대표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1부 예배, 2부 영어예배, 3부, 4부 예배 후에 열린 공동의회에서 투표한 결과 총827표 중 찬성 738표, 반대 74표, 무효 5표로

노회와 합의한 교단변경안을 통과시켰다. 나머지 절차는 오는 5월 노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시 모든 서류 절차들이 마쳐지게 되며 90일이 지난 후에 교단변경 절차가 마무리됨으로 선한목자장로교회의 PCUSA 교단 탈퇴가 최종 결정된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이터널라이프의 한 장면

2014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2014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Redemption’(Musical Eternal Life 2014 ‘Redemption’)이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4월 11일(금)부터 13일(주)까지 열린다. 세 번째로 3년여에 걸쳐 공연되는 동시 영어자막을 준비해 한인 1세와 2세 뿐 아니라 다민족 사회를 겨냥한 한인사회 최초의 문화공연이 될 것이다. ‘이터널 라이프’는 김현철 감독이 극본과 노래가사 전곡을 썼으며, 정봉화씨가 30곡 전곡

을 작곡, 현대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 성가곡 스타일의 곡들이 모두 섞여 있어서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공연시간은 약 2시간5분이며 티켓 가격은 10달러이며 티켓은 조이독백화점, LA기독서적센터, 복음사, 은혜서점(은혜한인교회 구내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은혜한인교회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6-1006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 청소년농구대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주최하고 뉴욕청소년센터 뉴욕유스미니스트리네트워크(NYYMN)가 주관하는 청소년농구대회가 4월 26일(토) 오전 8시부터 후레시 매도우 할리 카우 파크에서 열린다. 참가대상은 6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 회원교회 소속 학생들로 리그, 프레이오프, 챔피언십 등으로 팀당 150달러(두번째 팀은 100달러). 신청마감은 4월 21일. ▲문의: (718)321-1010

“사도행전의 교회, 사랑과 감사 넘치는 교회”

부르클렌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위임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 소속 부르클렌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위임예배가 지난 23일 노회 주관으로 성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위임받은 이윤석牧사는 “생명 넘치는 교도의 눈물과 말씀이 있는 식탁을 준비해 가장 건강한 사도행전의 교인들이 되도록 섬기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성경적인 교회의 본질이 잘 드러나는 사도행전의 교회,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며 교회의 7가지 비전을 선포했다.

교회의 비전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교회 △성령님과 진리의 예배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져가는 교회 △영혼구원의 열정이 갈수록 더하는 교회 △하나님의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충실하고 적극적인 교회 △차세대들과 다문화의 믿음과 헌신을 인도하는 교회 △치유와 기쁨 넘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섬김을 감당하

되 모든 사역이 하나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예수그리스도만 증거되도록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 속에서 감당하리라!

예배는 조성훈 목사의 인도로 서기 문종은 목사의 기도과 흥춘식 목사의 성경봉독, 부르클렌제일교회 아중찬단의 찬양에 이어 노회장 순한권 목사가 ‘나다니엘의 소명’(요 1:45-51) 제목으로 설교했다.

위임국장 김해근 목사가 인도한 위임예배에서는 서약문답과 기도, 공포에 이어 순한권 목사는 이윤석 목사에게 위임패를 증정했다.

위임목사에게 행한 권면은 2대 담임목사 이규본 목사가, 교우에게 행한 권면은 이영상 목사가 했다. 또 위임목사에게 행한 축사는 김해천 목사가, 교우들에게 행한 축사는 문경환 목사가 맡았다.

최지혜 자매의 특송에 이어 정진욱 장로가 인사와 광고가 있는 후 이원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식사기도는 김성국 목사가 했다. (유원정 기자)

“한마음으로 단합된 예배 드리자”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1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매년 주최하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4월 20일 오전 6시) 제1차 준비기도회가 준비위원장 박맹준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신일교회에서 열렸다.

예배는 김영환 목사(협동총무) 인도로 기도 이종명 목사(장학위원장), 말씀 박맹준 목사(“십자가 고난 전 예수님의 당부”, 마26:36-46), 동성기도(부활절새벽연합예배를 위해, 교협과 회원교회를 위해) 전희수 목사(회계), 광고 송일현 목사(서기), 축도 이재덕 목사(부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예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장 김승희 목사는 “지난 14여년 간 지역준비위원장을 했었다. 이단을 막을 단체는 교협밖에 없으며 한인사회 내 단체 중에서도 기독교의 위치

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교협 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마음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드려야 한다”며, “할렐루야대회는 연합의식을 갖고 협력하지만 부활절 연합예배는 그렇지 못하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모든 회원교회와 특히 목회자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맹준 준비위원장은 “지금까지 지역별 연합예배에 열심히 참여했다. 교인들도 좋아한다. 부활절 연합예배를 통해 지역교회가 서로 협력하며 본질로 돌아가서 부활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려는 기복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별 모임에 친교비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차원의 교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덕 부회장은 “전 회원교회가

함께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으나 지역별로 나누게 된 것은 각 지역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에도 각 지역별 교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희 총무는 부활절연합예배 지역별 준비위원장 선정의 어려움을 밝히고 “그러나 이번에는 증거회

장님들이 적극 협조해주셨다”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부활절연합예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 및 추가된 지역준비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플러싱2/최요셉 목사 △칼리지포인트/김진관 목사 △리틀넥/장소:은혜교회/김요셉 목사 △맨해튼/주요식 목사 △롱아일랜드3/박성원 목사

2차 기도회는 3월 31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신일교회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지역교회 전도지 공동제작

뉴욕전도협의회, 제10회기 사업 발표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10회기를 맞아 첫 사역으로 전도용품과 전도지를 뉴욕지역 교회와 공동으로 제작한다.

전도협의회는 “1. 전도하기를 결단하고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만들거나 전도용품을 아직 만들지 못한 교회 2. 전도용품을 지역 교단 교회로 공동으로 만들어 전도하기 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를 대상으로 전도지를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전도협의회는 △전도와 기도를 통하여 회원교회 부흥을 위한 협력운동 △50교회와 50명 정 회원 확보 운동 △매 모임마다 전도에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운동 △합심 기도로 전도의 불씨를 불어넣어가는 운동 △영적으로 충만해

지는 전도협의회 운동 슬로건을 내걸고 제 10회기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전도지 및 전도용품 만들어 나누기(1차 4만장, 전 뉴욕교회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나눔)
2. 매월 2회 이상 노방 전도회 실시
3. 전도협의회 회원 교회행사 및 예배 시간 정기적으로 신문광고
4. 전도부흥집회 개최(10월말-11월초)
5. 매월 월례회 소집 합심기도회
6. 송년의 밤 개최(12월말)
7. 전도에 모범을 보이는 미자립교회 후원 및 성도 자녀 장학금 지급

전도지 제작 문의는 허윤준 목사(718-637-1470, 이메일 Jameshur63@hotmail.com)나 안승백 목사(646-233-8770)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부활절연합예배 1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원로목사회 새 회장에 소의섭 목사

제12회 정기총회, 부회장 홍상설 목사... 팔순잔치도 함께



뉴욕원로목사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대뉴욕지구 한인원로목사회(회장 김용해 목사)가 지난 19일 정기총회를 갖고 새 회장에 소의섭 목사를 선출했다.

뉴욕대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 12차 정기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정익수 목사 사회로 립인환 목사의 기도, 장정순 목사의 설교, 사모특별찬양과 이상철 임지웅 목사 등 사중창에 이어 김용해 목사 집례로 성찬식을 가졌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회칙에 의해

현 부회장 소의섭 목사가 회장으로 자동승계하고 부회장 선거는 공천위원회에서 홍상설 목사와 정익수 목사를 공천해 투표한 결과 홍상설 목사가 19표를 얻어 당선됐다. 또 총무에 정익수 목사, 회계로 이상철 목사를 임명했다.

나머지 안건은 신임 임원들에게 임명하기로 하고 폐회한 후 임근하 목사와 정익수 목사의 팔순기념 축하잔치를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원로목사회)



뉴욕장로연합회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20차 목요기도회

9일 임시공동회의...뉴욕서노회, 가처분 신청키로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목요기도회가 지난 20일 오전 8시 장로연합회 예배실에서 열렸다.

임원 및 회원들이 모인 제 20차 목요기도회는 김명신 장로 사회로 피아노반주 손옥아 권사, 대표기도 남태연 장로, 장광성 목사의 트럼펫 특별연주에 이어 송병기 목사(목양장로교회 담임)가 설교했다.

송 목사는 창세기 5장 21-24절을 본문으로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

목으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특별기도는 김영호 장로(에녹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와 배상규 장로(사순절 구속의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가 인도했다. 이어 김연장 장로의 헌금특송과 박성범 장로의 헌금기도가 있는 후 송병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부르클렌제일교회 이윤석 목사 위임예배를 마치고 참석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장로성가단 낄싱홈 위문공연



뉴욕장로성가단(단장:손성대, 지휘:이정진)이 지난 22일 유니온플라자 낄싱홈을 방문, 위문공연을 가졌다. 공연은 장로성가단의 찬양과 이현경 자매의 플룻 연주, 소프라노 박은미 집사의 특송, 김기호 장로의

트롬본 연주로 진행됐다. 뉴욕장로성가단은 주기적인 양로원 순회공연을 통해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성가단)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PCUSA) 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2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 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Missional Church Seminar)”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주제강의※

강의1: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멤버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세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강의2: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중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MC) 공동의장

강의3: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Missional Church and Diaspora Ministry)



매현진 목사
주 예수 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책(KAFH) 이사장

강의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Congregational Life of Missional Church)



노승환 장로
주 예수 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현장방문※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 / 선교관)
-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 공원)
-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 / 리치몬드 시)
- 산골빈민촌 사역 (Appalachia Service Project - 영상)
-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영상)
- 한국음식문화축제 (Korean Food Festival - 영상)

일 자 :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주 예수 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숙 박 :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 30명
등록비 : \$100 (교재 포함 및 숙식), 선교사(등록비면제)
등록처 : 주 예수 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주 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 관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CUSA)
주 역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KWMC)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560-7500,7509 Fax(804)560-7514

나성영락교회, 서울영락교회와 함께하는 북한선교학교

‘소원(So One)’ 주제로 165명 수료



나성영락교회와 서울영락교회가 함께하는 북한선교학교가 성황리에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원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김화자 한인기독교상담소장이 상담소를 소개하는 모습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 개원

개원식, 학술세미나 등 기념행사 열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 한인기독교상담소(소장 김화자 교수 The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 이하 KACC) 개원 기념행사가 18일 오후 6시 성황리에 열렸다.

송정명 총장은 “저희 월드미션대학교가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커뮤니티를 위한 상담소를 개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한인들이 상담소를 통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 개원식은 김화자 교수의 사회로 송정명 총장이 환영사를, 유성환 이사장의 기도, 그리고 김화자 교수가 상담소 소개를 했다.

2부 오전 후 3부 학술세미나는 신선복 대학원장이 사회로 시작, 조나단 강 박사가 ‘미주 한인사회의 정신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김현경 교수가 ‘이민사회의 정신건강이 교회의 역할’, 그리고 김화자 교수가 ‘이민사회의 정신건강과 월드미션대학교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했다.

KACC는 지난 2월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상담소 5층(507호)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건강 8주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월드미션대학교 재학생을 위한 그룹 상담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다.

또한 커뮤니티를 위한 정신건강 인식증진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월 한달간 ‘Sleep awareness, Gambling problem awareness’라는 주제로 실시 중에 있으며 4월에는 ‘Sleep awareness’라는 주제로 실시하게 된다.

▲문의: (213)738-6930, info@kacc.net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가 서울영락교회(담임 이철신 목사)와 함께하는 ‘북한선교학교’를 20일부터 3일간 개최했다.

김경진 목사는 “북한선교학교는 나성영락교회가 1년여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통일사역자 훈련”이라고 운을 댄 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서울영락교회와 함께 북한선교를 위한 첫걸음을 열어주셨다. 이번 북한선교학교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북한 선교해야 할 것인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며 어떻게 북한선교를 실시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통일을 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통일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디아스포라교회가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잘 준비해나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북한선교학교 개최예배는 김경진 목사가 설교했으며 이철신 목사가 폐회예배 설교를 인도했다. 또한

양금희 장신대교수와 구혜미 전도사(영락교회 뉴코리아국제학교 담당)가 ‘북한에 대한 자기이해’, 하충업 목사(영락교회 선교전담)가 ‘통이공통체란 무엇인가’, 김내영 고당조만식기념사업회 이사가 ‘영락교회 북한선교학교 자유인 사역’, 하충업 목사, 구혜미 전도사, 그리고 탈북자 박지는 자유인과 황금주 자유인이 ‘교회에서의 통이공통체’, 이철신 목사가 ‘북한교회세우기’, 양금희 교수가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과 ‘통일성경공부’, 이우성 팀장(월드비전 북한사역팀)이 ‘NGO 대북지원사업’, 김성이 장로(영락교회/이화여대 명예교수)와 김정란 권사(영락교회/건국대학교 명예교수)가 ‘통일복지’ 등 주제로 강의했으며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이 ‘북한 정치이해’, 동용승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가 ‘북한경제이해’의 주제를 영상으로 강의했다.

또한 통일사역팀 구성시간도 가져 통일 후 북한선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수료식 이후에는 교회주자장에 마련된 화단에 소원통일 기념사를 읽는 시간을 가져 통일이후 북한에 복음이 온전히 심어질 수 있기를 기원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를 닮자’ 주제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설립35주년 기념부흥회

토랜스제일장로교회가 설립35주년을 맞아 21일부터 사흘간 김성길 목사(시온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자’라는 주제로 기념부흥회를 개최했다.

김영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 집회는 신상욱 장로가 기도했으며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김성길 목사가 ‘생명을 사랑하고’(벤전3:10-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생명 살리는 윤리운동은 나 자신이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약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기독교윤리이자 생명이다. 기독교윤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이 우리 통령 하신 일이다. 허를 함부로 놀리

는 일은 성도가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너 죽고 나살자”는 사탄의 원리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은 상생의 원리다. 기독교정신은 ‘내가 죽고 내가 산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날 보기를 원한다면 허를 금하고 약한 말 듣기를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길 목사는 둘째날 새벽집회는 ‘응답되는 기도’(계 3:20), 저녁집회는 ‘하늘이여 노래하라’(요 13:34-35), 주일예배 1부 ‘성도가 사는 법’(마6:33-34), 그리고 주일 저녁집회 ‘교회론’(엡5:22-32)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회게 게시판



LA 기쁨의교회 춘계부흥회

LA 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춘계부흥회가 ‘건강한 성도,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로 4월 4일(금)부터 6일(주)까지 갖는다. 강사는 이병욱 장로(의학박사, 대담클리닉 원장).

▲문의: (213)351-9975

달라스연합감리교회 특별집회

달라스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 특별집회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31일(월)부터 4월 2일(수)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흥성건 목사(NCMN대표).

▲문의: (972)258-0991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웃초청 콘서트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조수미,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4월 3일(목) 오후 8시 이웃초청 콘서트를 개최한다.

▲문의: (714)772-7777

미주장신대 3차 공개 세미나

미주장신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3차 공개세미나를 ‘갈빈은 살아 있다. 교회갱신을 위한 갈빈의 윤리신학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4월 3일(수) 오전 10시30분에 갖는다. 강사는 박성민 박사(이주사퍼시픽대학교 총장 특별보좌관).

▲문의: (562)926-1023

유타소망교회 설립26주년 부흥회

유타소망교회(담임 양익성 목사 1240 E. 5600 S., Salt Lake City)는 설립 26주년 부흥회를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담임)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갖는다.

▲문의: (801)261-2558

생수의강선교교회 설립17주년 축하예배

생수의강선교교회(담임 안동주 목사) 설립 17주년 축하 예배가 30일(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문의: (562)653-0178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부흥회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 14381 Magnolia Street)가 28일(금)부터 30일(주)까지 ‘다르게 삼시다’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한다. 강사는 김용훈 목사(위성톤열린교회 담임).

▲문의: (714)893-1652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성길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오는 6월 3일에 예정된 LA카운티 롱비치 경찰국장, 세리프국 출신 폴 세리프 국장선거의 후보로는 제임스 헬몬드 부국장, 토드 로저스 현 부국장 등이 있다. (박준호 기자)

헬몬드 LA카운티세리프 국장후보 한인사회 방문

남가주교협 등 지원 호소...후원행사 4회 예정

오는 6월 실시되는 LA카운티 세리프 국장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제임스 헬몬드 세리프 부국장이 한인사회를 방문 지지를 호소했다.

20일 오전 가든스위트 호텔에서 남가주교협과 남가주목사회 등 지지

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제임스 헬몬드 후보는 “세리프 국장으로 당선되면 공공안전은 물론 한인커뮤니티와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한인 등 소수계 경관을 더 많이 충원에 소수 커뮤니티에 더 가깝게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헬몬드 후보를 지지하는 남가주 교협회장 박효우 목사는 “우리 한인들이 헬몬드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것은 리더십이 뛰어나고 한인들에게 진숙한 활동을 펼친 진한파라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활동을 증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헬몬드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한인사회는 헬몬드 후보에 대한 펀드레이징 행사를 4회 계획하고 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양)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lafgusa@yahoo.com / www.lafgu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 Tel: (323)388-7101, (F) (32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담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전 6:00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목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jgpc.org	등동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영양예배: 오후 7:45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bk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말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www.h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등 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원) 팩스: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월요일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6:00(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mpcia.org Tel: (213)387-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수-목예배: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0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수요일예배: 오후 7:30 대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주일) 목요예배: 오후 1:00(주일) 목요영양예배: 오후 7:30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차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토) 영양예배: 오후 7:30(토) www.samsungchurh.org Tel: (562)800-8800, Fax: (562)691-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vsybn@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8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새벽: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조효숙 주일예배: 오후 2:00 수-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533-1155 1741 South Baldwin Ave., Arcadia, CA 91007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후 8:00 목요일영양예배: 오후 8:00 목요일학교: 오후 8: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laacpc.org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엘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목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nd-L.A., CA 90020	일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전통) 금요예배: 오후 8: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침례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9639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영양예배: 오후 8:00 금요침례예배: 오후 8:00 목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목요일영양예배: 오후 24시(토) 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목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목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nerstonev.com / e-mail: pastor@conerstonev.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803	토랜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해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금요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후 8:00 Tel: (949)357-9425 / Fax: (949)3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85-0009 Fax: (323)68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북한 지하교회 공금증 10가지

국제오픈도어선교회(오픈도어)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다. 오픈도어가 지난 1월 발표한 '세계 박해 순위'에 따르면 5만-7만명의 북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다. 더욱이 지난달 북한이 노동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해 사상 단속을 강조하면서 지하교인의 신앙생활은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에 지난 17-19일 서울유에스에이선교회의 소개로 북한에서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온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지하교회에 대한 공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었다.

“교회 건물없이 집에서 보초 세우고 예배”

-지하교회는 어떻게 조직되나. “어릴 때부터 일요일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한 명은 꼭 보초를 썼다. 우리 덕에 목숨을 건진 꽃재비 2-3명이 가끔 집에 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때문에 어머니가 모임을 만들자 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다. 북한은 속으로 믿는 사회이므로 겉으로 드러냈다면 기독교가 뿌리째 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60대 A씨)

는 것은 같다.”(40대 C씨)

-선교가 엄격히 금지된 상황인데, 전도가 가능한가.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인도 헌금을 하나. “십일조 같은 헌금은 없다. 각자 하나님 앞에 소수의 일부를 내놓고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데 쓴다.”(40대 C씨)

-한국교회엔 여러 교파가 있다. 지하교인도 교단이 나뉘나. “교단은 전혀 없다. 가족 단위 기독교인이 있을 뿐이다. 가족 이의 그리스도인을 단 한번 만났다. 어느 바닷가로 팔미역 채취하러 갔을 때 한 할머니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했다. 슬쩍 킷의 이야기를 흘렸더니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믿으세요?’라 묻더라. 이 할머니

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60대 A씨)

-남한교회를 위해 복역 성도들이 기도한다던데.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의부 세계에 대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잡혀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말자는 기도는 했

고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찬송도 즐겨 불렀다.”(40대 C씨)

-북한정권이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김일성 유일사상을 벗어나 다른 사상을 따르는 걸 용납지 않아서다.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명령과 지시를 거부해 정권을 위협할 거라 여긴

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발각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나.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유일사상을 배격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절대로 살지 못한다. 총살감이다. 그래서 집 밖에 복음이 나가기 어렵다.”(60대 A씨)

“기독교 관련된 사안은 조사과정이 거의 없다. 트럭이 와 온 가족을 신고 가면 그날 밤에 끝나는 거다.”(20대 B씨)

-넌리 알려진 성경구절이나 찬송가가 있다면. “어머니가 연결 교회에서 20-30개 외워와 우리에게 배워주었다(가르쳐줬다). ‘천부어 의지 없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함은’ 등이다. 성경말씀은 다니엘과 스테판 등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야기 중심으로 배웠다.”(60대 A씨)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

고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좋아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란 찬송도 즐겨 불렀다.”(40대 C씨)

-북한정권이 기독교인에게 적대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보나. “김일성 유일사상을 벗어나 다른 사상을 따르는 걸 용납지 않아서다. 김일성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명령과 지시를 거부해 정권을 위협할 거라 여긴

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다. 하나님께서 남한에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감사한다. 그리고 남한 교회가 민족복음화에 세계선교에 쓰임 받게 해 달라 기도한다.”(40대 C씨)

-한국 성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우리 가족은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발각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하지만 내가 남한에 왔을 때 어머니는 기독교인이었더라니 충실당했다. 딸과 딸이 다 하셨다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남한 성도는 신앙을 쉽게 생각한다. 신앙을 목숨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많았으면 한다.”(20대 B씨)

“북한이 자유로운 나라가 돼 맘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는 게 기도제목이었다. 그런데 남한에 와 보니 진심으로 믿는 이들이 거의 없다. 12년 동안 교회 다니고도 성경 본문도 못 찾는 사람도 봤다. 한번이라도 성경을 다 읽고, 한 말씀이라도 삶에 적용하려 애쓰는 남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한다.”(60대 A씨)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식사시간이 예배시간이다. 예배지도자인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안부를 묻고 심계명에 의거해 삶의 교훈을 작은 목소리로 전했다. 그리고 각자 흠어져 성경을 돌려가며 읽었다. 아버지가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오후 8시 이후 자주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난다.”(20대 B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지하교회는 건물도 없고 예배 형식도 한국교회와 다르다. 그러나 인도자가 있고 예배 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를 고백하

는 것은 같다.”(40대 C씨)

“대놓고 할 수 없다. 서로 두터운 신뢰를 쌓을 경우만 가능하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보위부에 알릴 사람은 거의 없다. 내 딸도 6개월간 결핵에 걸린 이웃을 돕고 전도했다.”(60대 A씨)

다”며 “동성에 처벌 조항 폐지는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군복무하는 많은 병사들의 인권과 개인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도 성명에서 “부모들이 자식을 안심하고 군에 보낼 수 있도록 군형법 92조의 6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유회 가천대 교수는 “생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상급자 한 명이 동성에 성함을 띠면 적지 않은 병사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같은 피해와 후유증은 전역한 뒤에도 그들의 일생을 고통 가운데 보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 시민유산 영구 보전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선교사가 1962년 왕시루봉으로 자리를 옮겨 수양관 시설을 다시 지었다. 현재 남아있는 유적은 가옥 10채와 교회 1개동, 창고 1개동 등이다. 이 건축물은 복미·영국·노르웨이식 등 외국의 건축양식을 집적한 보기 드문 건축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012년 이같은 유·무형 가치를 인정, 왕시루봉 선교사 유적지를 ‘꼭 지켜야 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방치 댄 한국교회 성장에 심각한 위기”

미래목회포럼 정기포럼 미래목회포럼(대표 고명진 목사)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동호로 그랜드호텔에서 호텔에서 ‘한국교회 이슈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제51차 정기포럼을 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고령화 사회와 미래전략’을 주제로 강연한 아시아미래전략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먼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현재 추세라면 2050년 이후에는 전국 대부분 교회의 주일 학교 학생들이 현재의 5-10% 미만으로 줄고, 장년의 60-70%는 5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소장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프랑스로부터 유관련 보조금과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산을 늘리거나 미국처럼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은 어렵고, 이민자 정책은 단일민족 전통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한국에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곳곳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며 캠페인을 펼쳤지만,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해법으로 정부와

선교의 창 (4)

선교 완성을 향한 팀 사역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21세기 이 시대에 과연 선교 완성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래도 회의적이다. 모두가 중심이 되는 각개 전투 양상으로는 거친 도전들을 넘을 수가 없다. 이미 몇몇 선교 지에서는 사역 한계의 임계점(臨界點, Critical point)에 도달해 있다. 이제 우리는 뭔가 혁신적인 방법으로 선교 패러다임(Paradigm)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없다. 주된 관건은 공동의 목표를 향한 팀 사역이다. 앞으로 우리 선교가 연합하여 어떻게 팀워크를 발휘하느냐에 따라 역사적 평가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선교는

해 땅, 바다, 하늘 그리고 이억 만리 떨어진 미 국방성에서 임무가 수행되고 있다. 그야말로 지역을 뛰어넘은 글로벌한 임계 작전이다. 세상 전쟁도 이리할진대 하물며 영적 전쟁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이것은 시작부터 시공간을 뛰어넘어왔다. 더욱이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하나의 선교지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킹덤(God's Kingdom)을 위해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여 대 연합적인 사역을 펼쳐야 한다.

팀 사역에 대한 투쟁의 본은 성경적이다.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라는 팀워크로 존재한다. 예수님께서도 문제 많은 제자들

1992년 선교한국에 주 강사로 섬겼던 Thomas Wang목사님이 명쾌하게 제시했다. 그것은 “누가 이 사역에서 중심이 될 것인가?(Who is a center in our ministry)”에 대한 헤게모니(hegemony 패권)적 싸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왕 목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2000년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이 사탄에 이용되어왔으며 힘을 소진했는지 탄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사실 여기저기 대영교회와 교단 총회를 들어다보면 누가 크며 중심이 되느냐에 대한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러한 쟁투는 함께 팀워

인가? 아무튼 사역에서 ‘홀로서기’란 위험하다. 성경적이지도 않다. 효율성도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해결할 길이 없다. 비록 팀 사역이 간단치는 않지만 그래도 독립사역의 약점을 상당히 커버하는 대안이다. 속담에 “한 사람의 100보다도 100사람의 한 보가 낫다”는 말이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니다.

모진 풍파에도 끄덕 없는 시온 성을 쌓으라! 이것이 21세기의 시대 논리라면 이제 우리는 대동단결하여 팀 사역으로 나가야 한다. 보시 우리 인간은 이것저것 할 만큼 능력이 많지 않다. 인생이 길지도 않다. 일평생 한

피선교지에는 100개의 텐트(Tents)보다 1개의 빌딩(A building)을 필요로 한다. 텐트는 바람만 세계 불어도 날아가나 빌딩은 100년을 기약할 수 있다. 빌딩이란 팀 사역으로 이루어진 선교적 과업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 연합을 해 승부수를 띄울 때가 되었다.

오케스트라, 축구팀, 그리고 군대의 작전과 같은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홀로 총명무진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지휘자를 중심으로 팀워크를 이룬다는 것이다. 복지는 사람, 축구선수, 총을 든 병사는 아무리 의욕이 불일 듯 일어난다 해도 맘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연주나 작전을 망치는 것이 된다.

시대의 전쟁사를 보면 흥미롭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있기 전만해도 인간은 힘과 무예가 뛰어난 용장을 의존했다. 이들 장부들은 일단 천 만 이상을 감당했다. 삼국지의 조자룡(趙子龍)은 주군 유비의 아들을 가슴에 품고 조조군 100만 속을 단기필마(單騎匹馬)로 헤쳐 나갔다. 이는 비록 소설이지만 풍자하는 바가 크다. 군졸은 군졸이다. 그들은 장수가 죽으면 낙엽처럼 흩어졌다. 이처럼 현대의 전쟁은 팀워크보다는 회색 장수 위주였다. 그러나 현대는 아무리 람보 같은 신출귀몰한 자가 있다 해도 총 한방이면 끝난다. 지금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이 작전을 위

과 함께 일하셨다. 그들은 사역에 도움은커녕 때로 걸림돌이기도 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납하시며 긴 안목으로 선교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교의 유업을 잇게 하셨다.

바울도 확실한 팀 사역자였다. 그의 행적을 보면 홀로 움직이는 때가 없었다. 디모데, 마가, 누가 외 여러 일꾼들이 그 주위에 있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와 동역했던 많은 일꾼들이 언급되고 있다. 바울 선교의 열매는 팀 사역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이처럼 선교에 팀워크는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능률을 높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각 사람이 홀로 일을 하면 아주 제한적이나 10명이 풀링 시스템(Pooling System)으로 힘을 합치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

사실 사역에 있어 팀 사역의 중요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잘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크로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지배논리이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사탄은 누구보다 우리 인간의 약점을 꿰뚫고 있음을 간파해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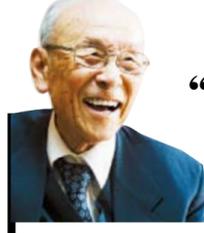
선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개성이 강하다. 그래서 꼬리보다 머리가 되기를 원하며 누군가에게 간섭 받는 것을 싫어한다. 이 에 팀을 이루어 사역하면 자기 고유영역이 제한되고 독창적인 색깔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사역 자체도 버거운데 때로는 동료 때문에 심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그래서 100명의 선교사가 합하여 1개의 빌딩을 지기보다 각각 100개의 자기 텐트를 치려 한다. 자기가 친 텐트는 부담이 덜하고 신속하며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늘 피선교지에 요구되는 것은 100개의 텐트보다 1개의 빌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텐트는 오래갈 수가 없다. 바람만 세계 불어도 날아가 버린다. 그렇다면 이러한 텐트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

가지만 불되고 씨름해도 정상에 오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1인 다역(多役)보다 1인1역으로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되어 팀 사역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그간 우리의 관행처럼 자마다 자기 집을 지으려 할 때 한국선교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님의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이에 사역자는 종말론적 시각으로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은사와 준비됨에 맞게 역할을 하면 된다. 보험의 원리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돕고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 쉬운 것부터 하 나씩 시도하면 된다. 먼저 선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현지인과 함께 팀 사역을 이루며 나아가 타 기관 선교사들과 가능한 선에서 연합을 시도해 가는 것이다.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면 모든 갈등은 사라지게 되어있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메일: jrson007@hanmail.net



방지일 칼럼 (33)

“본대로 들은 대로”

성장의 한계

수양버드나무의 늘어진 가지가 그냥 자라지는 않는다. 땅에 닿을 듯이 길게 늘어지는 것도 한도가 있음을 본다. 위로 자라나는 포플라도 그 얼마나 높이 자랄까, 그도 한도가 있음을 본다. 잘 자라나는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나는데 얼마나 자라나, 그 역시 한도가 있음을 본다.

교회 성장학이 있어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성장하는 교회 시찰 견학도 근자에는 성행한다. 성장에 대한 학위 논문도 받아 본다. 그 어떤 성장의 방안도 한도가 있는 것이다. 무한으로 자라나지는 못한다할까, 자라지 않는가 할까, 근자에 교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세들의 문제이다. 교회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문제이다. 모여주지를 않는다고 이구동성이다. 데스크에 아이들이 도둑되어 TV나 인터넷에 매여 산다. 프로그 다양하여 그 프로보다 낮게 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이라 다른 방도를 모색하자기도 한다. 교회학교 학생이 몇 만을 헤아린다는 교회도 있었다. 반사에게 책임을 지워 책임 있게 각각 감당하는데 크게 주효하다고 말을 들었다. 이렇게 시행하던 목사님의 말이다. “그도 한도가 있어요. 될 것 같더니 그렇지 못하더군요”란 고백 뿐 아니라 크게 염려한다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기성세대가 지나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모든 반사들에게 목사의 설교를 필기하게 하여 그대로 아동들에게 가르쳤는데 처음에 그렇게 주효할 수 없어 잘 모이고 잘 받아들이더니 그것도 한도가 있다는 말이다.

공산당 정지 하에 9년이나 살아 보았더니 그들은 잠시도 백성으로 쉬게 하지 않았다. 생동적으로 무슨 무슨 구호를 걸어 운동을 피를 물고 일으킨다. 쉴 시간이 없다. 머리로 그로고 시간도 그러하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계속적이다. 민심을 짐중시키는데 주효하다고 보여졌다. 교회적으로도 때론 아니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가지 지난 다음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집중시킬 수도 있겠다. 다 해보기도하고 옆에서 보기도 한 바이다. 어느 것이나 인간의 두뇌의 산물에는 한도가 있게 마련이다. 옛날 교육관도 없이 한 채 교회당에서 교회학교 유년부, 중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시간제로 할 때 나는 자라났다. 교회 주일 학생(유년부)이 어른보다는 많았다. 주일출석, 요절, 헌금도 출석부에 네 가지 표가 있어 그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처음 하는 것이라 그렇게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오늘날은 교육관이 융성하며 요란한 오락도 운동기구도 마련해 놓았으나 아동의 취향에 맞추지 못해서인지 다른데 인기가 더 있어서인지 교회당으로 모이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 락송(Rock Song)이라는 요란한 음악으로 아이를 모아보려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다양한 프로도 마련한다. 전에 교회 장로 집사들이 가르쳤으나 이제는 전인 전도사들이 각 부마다 담임하고 있다. 그래도 모이는 수는 이전과 같지 못한 실정이다.

나는 이런 문제를 위해 묻는 말도 많이 들어본다. 무슨 방도가 없을까. 인간의 안간힘, 인위적 각양 방안이 세계적으로 안출함을 보기도 한다. 이에는 양보다 질에 치중하면서 비록 어린아이들에게라도 바른 복음신앙관을 심어줘야 한다고 본다. 한두 아이들과 같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저들도 기도하게 하며 거기서 죄관을 알게 되며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 저들의 진지한 기도가 있을 때 신앙은 뿌리를 박는다. 저들이 복음신앙에 뿌리를 박으면 그 친구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다. 이런 질적 신앙이 중심이 되어야 알찬 교회학교를 운영하여야 하리라 본다. 어른들이 한두 아동씩을 맡아서 가르친다 함보다 같이 성경요절을 외우고 같이 가사를 읊미하는 찬송, 같이 기도하며 기도하게 하는 일이 교회성장의 유일의 길이 될 것이라고 본다. 저들에게 성경요절을 한질 두질 외우게 또 기도하게 하여 죽는다. 기도는 우선 내 삶의 보고, 의는 그리고 받은 은혜 감사, 깨닫는 죄 자복! 신문지상에 엄청난 죄상들이 들릴 때는 그들을 위한 대도에서 자신의 죄도 찾아진다. 감히 이런 옛날의 하던 일을 제외해 본다.

(1999년, 2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외국)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문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미사기도회: 오후 9:00 Tel. (062)3208-8491~5, Fax. (062)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외국)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9: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젊은이들 위한 세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2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02)2-998-9419,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2(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2)942-8882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감일동)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창신구 용암동 415 www.yank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후 7:00 금요미사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새벽(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인교회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259-12	청주주인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미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월-토)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월-토)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월-토) www.pccov.org Tel. (604)564-5780, Fax. (604)56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d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Tel. (5511)6693-9754, 6692-1165 AV. CARABOBO 1253, 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R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9:00 수요기도회: 오전 8:00 수요저녁예배: 오전 7:40 유. 초. 고.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ji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사역 가꾸기(3)-<인도 사역>

제 19기 CMF사모교실의 주제는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번째 강의였던 인격 가꾸기와 워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인 '사모의 사명 가꾸기' 시간을 통해 회개했던 사명과 사모의 정체성의 회복을 맞본 사모들에게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인격 가꾸기'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소개된 내용이지만 현실 속에서 어떤 반응을 가져오는 가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어느 선교지를 막론하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간의 내적 갈등은 다 있는 법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모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많은 에너지를 앗아가게 되며 심지어는 육신의 병까지 얻어 고통을 겪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이 인격에 병이 든 까닭입니다. 사명감에 불이

나사로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별떡 일어나 일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이상합니다. 베에 동인체 걸어나오는 나사로를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 놓아다니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풀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덤 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아예 깨끗하게 풀어주시는 다음 씩씩하게 걸어나올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풀어 놓아 다니게 너희들이 하거라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죽음을 해결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죽은 자를 살리는 몫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것은 사람들끼리 서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십자가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의미이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옆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인격에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스스로 묶여지게 되며 사랑을 하고 싶으나 잘되지 않고 성격 이상자가 되기까지도 합니다.

어릴 때 거절을 많이 당하면서 성장할 경우 거절감에 사로잡혀 모든 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원치 않는 누명을 쓰고 있는 경우 분노가 쌓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별 대우만 받고 자란 경우 사랑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부자움을 보고 자란 경우 두려움에 묶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리 없는데... 나는 언제나 문제 있는 아이야 하

스트레스 원인과 해소방법, 인격의 병 알아야 가진 상처 내어놓으므로 치료와 회복 경험해

불이 열심히 하는 사역자들에게도 이런 인격의 병이 있는 법입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관계에서 불거져 나오게 됩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생겨진 성격장애가 선교지에서 불거져 나올 때 생기는 문제들을 사모들은 직접 겪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집니다.

애정결핍, 분노, 상실감, 두려움, 열등의식, 완벽증

"조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는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1)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입니다. 2)나는 아는데 남이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3)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4)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나의 인격에 무슨 병이 걸렸는지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남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영적 문동병에 걸린 셈입니다.

"황순원의 사모교실"에 보면 필자는 남편의 사별이후에 만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영적문동병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격 가꾸기는 사역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욱 더 중요합니다. 특히 선교지에서 드러나는 증세들을 재빨리 발견하여 고침 받지 못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으로 인해 받는 상처 또한 커지는 법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죽은 지 오래되어 썩은 냄새 나는 시체를 어떻게 살리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시면서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마침내 돌을 옮겨 놓게 하신 후

며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완벽주의 부모아래 성장한 경우 나는 언제나 완벽해야 돼 하며 죄책감에 빠지는 경우, 인격의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사역자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풀어 놓아 다니게 될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있는 워십은 그룹토의를 통해 사모들의 스트레스의 원인과 해소방법 그리고 나의 인격의 병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서로 서로 사역하는 동안 받아온 스트레스와 상처들을 발표하며 내어놓으므로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조별 발표를 들어 봅시다
"어느 정도는 나의 쓴뿌리를 알고 있었으나 이번 시간을 통해 쓴뿌리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님께 더 내려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님의 인생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의 깊이로 순간순간 도전을 받았고 나 또한 하나님 말씀의 깊이와 요요함에 빠지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H사모).

"고통을 외면하고 싶지만 그 고통이 성숙시키심을 알기에 끌려왔던 시간들이었는데 이전 고통을 즐기며 그 고통 속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며 영성의 깊음 속에 거하고 싶은 나의 깊은 바람이 더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고통의 몸부림 결과 저에게 가까이 빛으로 역사하신 그분으로 나는 날마다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H사모).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이삭의 묵상 (창24:61-67) 찬446장

이삭 생애 속에 보여주는 것은 온유의 자화상입니다.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 언약순종의 꿈을 꾸어야합니다(62). 이삭은 언약에 집중해 아버지의 집을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산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소중성을 구전을 통해 전수받아 복의 근원으로 모든 민족을 구하는 꿈을 품고 나갔습니다. 둘째, 기도의 골방을 찾

아야합니다(63). 우리의 목표는 이상주의가 아니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습니다(마6:6). 교회는 먼저 기도해야합니다(딤후2:2). 셋째, 가정생활에 성실해야합니다(67). 이삭은 사라의 죽음으로 슬퍼했으나 결혼을 통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땅을 정복할 사람은 자기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화 영원한 기업 (창25:27-34) 찬492장

성경이 예서와 야곱 생애를 언급한 이유는 구속의 기업에 관한 바른 선택을 가르치려는데 있습니다. 첫째, 구속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합니다(31). 외형적인 가문, 은사 그리고 방법은 대동소이하나 기업에 대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서는 믿음을 경홀히 여겼지만 야곱은 갈망했습니다. 둘째, 기업에 대한 망령된 생각을 버려야합니다(32-33).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해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는 습관적 행동을 가리키며(히12:16-17) 욕을 좇는 행동입니다. 셋째, 구원의 기업을 즐겨야합니다. 기업을 사모함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복된 마음입니다. 그것은 야곱 생애의 특징을 이뤘습니다. 야곱과 동질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미 주신 그리그도안의 풍성한 기업을 발견해야합니다. 나의 영원한 기업을 알고 주장합니다.

수 뱀의 하나님 (창28:10-22) 찬364장

구원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결과가 같습니다. 야곱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12). 꿈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다리의 실체인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보인 것입니다. 둘째, 언약을 확증했습니다(13-15).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먼저 하신 언약에 복의 대상으로 "너와 네 후손"이라는 말이

더해졌습니다. 계시의 발전입니다. 셋째, 서원했습니다(20-22). 세 가지 서원은 주종관계를 분명히 한 언약의 본질을 보인 것입니다. 그 계시를 접한 야곱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더 분명해졌고 예배 중심한 삶과 하나님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라는 신앙이 확실해졌습니다. 야곱의 뱀열 체험은 모든 신자가 반드시 거쳐야할 신비한 체험입니다.

목 주께 감사하라 (시106:1-12) 찬378장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케 함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는 본문은 왜 밤사에 감사하라고 요약하십니까? 첫째, 그의 선과 인자 때문입니다(1). 하나님의 형상인 선과 인자는 자기 백성의 결음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둘은 인자와 진실로, 선과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과 공의로 표현했습니다. 만물과 역사가 나타난 그의 사랑이 바로 매일 먹는 성도의 양식입니다. 그럴 때 시인처럼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고민 많은 세상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4).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같이 넓고 깊으며, 하늘 같이 크고 높습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혜택이 선물이고 특히 죄와 죄책과 육의 세력에서 건짐 받음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의 바다로 뛰어듭니다.

금 주께 회개하라 (시106:13-48) 찬337장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 이스라엘은 그 말씀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곧 배은망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첫째, 흥해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우월성을 추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교회의 참 구원 즉, 죄로부터의 구원을 보인 것입니다(47-48). 그리스도의 부활로 신자는 그 기이한 구원에 들어와 그 열매를 먹고 살고 있

니다. 둘째, 기적 속에 살았으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혼이 쇠약했습니다(15). 의식주를 모두 기적으로 허락하였으나 감격뿐이지 난관이 오면 즉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유는 그것을 행하신 분과의 교제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모든 착한 일에 모든 것이 항상 충만케 하시는 주께 겸손히 항복하며 간구합니다.

토 인자와 선의 입맞춤 (시107:1-22) 찬460장

신명기를 배경한 시편 5권 중 첫 시편은 모압 평원에 있는 광야 세대에 대해 모세가 전한 가르침입니다. 첫째,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봅니다(1). 성경에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실 그리고 의와 공의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일마다 하나님은 사랑과 선으로 자기 백성을 간섭하신 것입니다. 둘째, 고통을 통한 겸손을 배우게 하셨습니다(2). 신적

성품을 나타내심이 자기 백성에게 겸손의 형상을 새기는 일입니다. 특히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연단하여 겸손으로 나가게 하여 자아부인을 배우게 하십니다(눅9:23). 고난을 당할 때 자아의 검질이 파쇄된 때 겸손과 온유의 향유가 흘러나옵니다. 성령은 그 속에서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빛오시기 때문입니다.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탁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회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체 활동)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 - 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교회연합선교대회 성료 “뉴욕 지역교회들, 선교지 찾아가다”

지난 23일 저녁 프라미스코교회에서 열린 교회연합 선교대회는 뉴욕지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선교의 불을 붙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회중찬양과 함께 찬양팀의 찬양(Our God)으로 시작된 대회는 어린양교회 어린이무용팀의 스페니시 댄스로 이어졌으며 크리스찬 개그맨 정종철 집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날 과테말라와 브라질 인디오 사역을 하는 유광수 선교사와 김철기 선교사, 북미원주민 사역자 Hervey Yesno의 간증, 마지막엔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제목의 성극이 있었다. 성극은 학창시절 의교선교를 해오던 청년의사의 전임 사역자로의 결단과정 갈등을 소개하며 관람자들에게 공감과 도전을 얻어냈다.

선교사 소개 및 간증에 앞서 사역지 소개 영상이 상영됐으며 아마존 인디오 사역 영상도 상영됐다. 또 정종철 집사의 개그 및 간증이 곁들여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날 처음 찬양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또 성극과 무용 등 순서를 맡은 어린양교회 팀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다음은 각 사역지 소개내용.

과테말라

유광수 선교사는 과테말라 비야누에바 시에서 2003년부터 학원사역을 시작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Colegio Cristiano el Camino a la Luz)를 운영해왔는데 올해 중학교를 개교했다. 전교생이 매주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주 1회 성경수업이 진행된다.

성경교육의 요청이 들어와 있다. 또한 과테말라에는 도덕 과목도 교재도 없기에 남부 교육청에 우리 교재를 도덕 교재로 인준 신청을 했는데 지난해 9월 인준이 됐다.

“과테말라 인구 1,430만명 중 4세에서 14세 어린이는 3백만이다. 이들의 양육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절실하다”고 유광수 선교사는 호소했다.

▲이메일: iglesiajuan@daum.net



신학생들을 교사로 삼아 1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면서 어린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자 6개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요청했으며 천주교학교에서도 성경교육을 하게 됐다.

사역이 확장되자 교재와 성경교사가 더 필요하게 됐다. 교재는 출판까지 해서 성경과 교재로 교육했지만 교사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아 과테말라 교육청 산하 남부청에 공립학교 교사들을 성경교사로 양육해 담임교사들이 성경을 직접 교육하게 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인준이 됐다.

1차로 우리 사역지인 비야누에바 시 산하 공립학교 교사 1천명을 성경교사로 양육해 40만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작년 8월 29일 1천명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마치고 담임교사들이 성경교육을 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 교육청 산하 6천명의 교사를 성경교사로 양육하는 사역이 남아있으며 또 서부 교육청으로부터

아마존

김철기 선교사는 브라질 아마존에서 신학교와 교회개척사역, 의료선교를 하고 있다. 1996년 8월 신학교를 건축하고 97년 3월 개교한 아마존 검은강 상류 신학교(Instituto Biblico do Alto Rio Negro)는 4년 내내 기숙사생활을 하는 초교과 신학교로 인디오 부족 목사와 선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학생과 가족들, 교사들을 포함 약 80명이 공동생활하고 있다. 2011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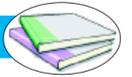
북미원주민

북미원주민은 오(誤)전도 종족이라고 한다. 오전도 종족이란 기독교 국가들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의 식민지 팽창주의가 기독교와 오버랩되면서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못하고 잘못(誤) 전해진 종족을 의미한다. 오히려 원주민들이 집단적 침략행위(식민정책)에 이용당함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에 대해 적

대적이므로 선교가 지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미국연방정부의 공식집계에 의하면 북미 원주민은 562종족 6백여 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북미 원주민은 2만여 세계 종족 가운데 가장 자살률이 높고 알코올, 마약 중독률 또한 최하다. 그들은 주권과 영토와 문화와 언어와 정체성을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선교대상에서조차 간과되고 누락된 채 잊혀지고, 심지어 그 존재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영혼이 없고 직업이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고 존재에 대한 의의도 없는 그래서 삶의 의미도 없다.

▲이메일: amazonaskim@gmail.com

책소개



저자 이재만 선교사

“창조주 하나님”

이재만 선교사(창조과학 선교회) 네 번째 책 “창조주 하나님”(두란노)가 출판됐다. “창세기 1장 vs 진화론”이라는 부제를 단 이 책은 성경의 첫 페이지인 창세기 1장에 대한 확신을 통해 성경 전체와 복음을 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책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리고 +DAY로 각 장을 나누었다.

1DAY는 세상의 시작-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DAY 증거 vs 증명-공상 아래 물과 공상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3DAY 총류 vs 종-물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4DAY 조화 vs 모순-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시니, 5DAY 진실 vs 거짓-육직이는 생물과 날개 있는 새를 종류대로 만드시니, 6SAY 하나님의 형상 vs 조작된 형상-

창세기 1장 확신 통해 성경 전체 복음 볼 수 있게 구성

땅에 기는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7DAY 창조의 완성-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안식하셨음이니라, +DAY 창조론 vs 진화론-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순서로 각 장마다 여러 주제를 다루며 교과서 속 진화론, 혹은 창조특강들을 삼입했다.

또 에필로그 ‘진화론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서는 창조과학선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소개하며 다음세대 위한 훈련과 비전들을 제시했다.

저자 이재만 선교사는 프롤로그 마지막에 “모든 이룬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고후10:5)라는 성경말씀을 인용하며, 책을 쓰는 동안 “밤잠과 새벽잠을 깨우기도 하고 찬양하게도 하고 안타깝게도 하고 기뻐 감격하게도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했다.

책 서두에는 여러 목회자들과 과학자, 의학자들이 추천서를 썼으며 이 책이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만나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권오서 목사(춘천중앙교회 담임)는 추천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이야기를 과학적이지만 난해하지 않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또한 진화론의 허점을 구석구석 밝히고 있다”며 “매마른 과학으로 인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원하면서도 맹목적이지 않은 신앙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 신앙의 길을 모색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한다고 밝혔다.

자연과학인 의학자로서 ‘창조는 신학교 진화는 과학’이라고 믿으며 내적 갈등 속에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철 연세대학교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서, 이재만 선교사를 통하여 창조가 과학임을 깨닫게 됐으며 창세기가 믿어지니 신구약이 모두 진실이며 과학임을 알았다. 이제 보고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것임을 고백한다”고 추천했다.

이재만 선교사의 저서로는 “창조과학 콘서트”, “노아홍수 콘서트”, “빙하시대 이야기” 등이 있다. 책은 각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유원정 기자)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인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교회(김영목사)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총회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피종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영우목사)		(지동근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생가금식기도원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 2013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총회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3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피종진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일 ~ 5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일 ~ 8일	한광교회(차은일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1일 ~ 13일	청파중앙교회(김영우목사)		

2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명교회(이재욱목사)

3

3일 ~ 6일	청일교회(박여호수이목사)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광교회(김병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7일 ~ 9일	월명동신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9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용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별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5

3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광명성복음교회(하용덕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3일 ~ 5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3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7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일	안천 대문교회(전명구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8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일	산곡기도원(한기재목사)
4일	갈멜산(김대석목사)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6일	평화의 동산 기도회(피종진목사)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목사)
2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3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4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김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9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10

1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1일 ~ 2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찬근목사)

11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영목사)

12

4일 ~ 6일	일심교회(원성은목사)
10일	창대교회(최홍도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8일 ~ 20일	대전 성광교회(정민영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2

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22일	인천가나안교회(정영석목사)

12

23일 ~ 2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9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0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조성근목사 CBS TV 특강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다시보기 www.cbs.co.kr/tv

트위터 www.twitter.com/cbsolomon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solomon

유튜브 www.youtube.com/cbsolomon